



[뉴스]
현대차그룹
임원인사 단행
02

창간 20년
since 2002



Economy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코스피	2472.53 (+39.14)	코스닥	729.54 (+2.00)
금리 (2년)	3.689 (-0.034)	환율 (원/달러)	1318.80 (+7.80) (11.30)

JY '뉴삼성' 인사 초읽기... 쇠신보다 안정 속 미래 혁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삼성전자 이달 초 정기인사
DS부문 대규모 승진 예상
경계현 부회장 유력설 솔솔
생활가전사업부장도 주목
컨트롤타워 재건 여부 관심



지난 8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전자로 부터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받은 부산 소재 중소기업 '동아플레이팅'을 방문해 제조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뉴스1

이재용 회장이 취임 후 사실상 첫 메시지를 낼 삼성전자 정기 임원 인사에 관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글로벌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안정에 무게를 실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미래 준비를 위한 파격적인 행보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적지 않다.

11월 3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12월 초 정기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보통 12월 둘째주에 발표해왔지만, 올해에는 경영 환경상 인사를 서두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올해 삼성전자 정기 임원인사는 이 회장의 경영 철학을 확인할 수 있는 첫 이벤트로 주목받고 있다. 이 회장이 지난달 승진 후에도 별다른 메시지를 내지 않고 협력사를 찾으며 협력 의지에만 중심을 두던 상황, 이번 정기 임원 인사로 이 회장 의중을 엿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일단 이번 정기 인사폭은 예년보다 적은 수준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위기가 이어지는 분위기에서 조직을 개편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인사를 진행한 여러 대기업들도 대부분 대표 경영진을 유임하고 승진 인사도 꼭 필요한 대상에만 실시한 바 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이미 주

요 경영진을 완전히 바꾸는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했던 터라 연이어 인사 혁신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다만 이 회장이 승진 후 처음으로 진행하는 인사인 만큼, 다시 한번 예상밖의 대규모 인사 개편을 단행하지 않겠냐는 예상도 남아있다.

핵심은 삼성그룹 컨트롤타워 재건 여부다. 삼성은 미래전략실 해체 후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삼성물산에 각각 사업지원 TF와 금융경쟁력제고TF, EPC 경쟁력강화 TF를 설치하고 계열사별 경영을 분리한 상태다. 그러나 글로벌 위기가 이어지는데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게되면서 이 회장 복권과 승진을 계기로 그룹사 통합 컨트롤 타워를 다시 부활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왔다. 최근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각사 TF장을 불러모으면서 컨트롤 타워 복원을 논의하지 않았겠냐는 추측도 나왔다.

만약 삼성그룹 컨트롤타워가 재건된다면 대규모 임원 이동과 승진 인사가 불가피하다. TF 구성원과 함께 그동안 경영 공백 속에서도 성과를 만들어왔던 주요 인사들을 대거 불러들일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이번 인사에서는 그룹 컨트롤타워를 복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기도 한다. 중요한 사안인 만큼 시간을 두고 면밀한 검토 후에 결정할 수 있다는 것.

컨트롤타워 재건 여부를 떠나 DS 부문에서는 대규모 승진 인사가 점쳐진다. 상반기까지 호실적을 꾸준히 이어왔고, 하반기 들어 글로벌 위기 속에서도 '초격차' 기술을 앞세워 여전히 시장 리더십을 지켜가고 있어서다. 당장 경계현 사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부회장으로 승진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반도체 시장 분석력을 높이기 위해 DS부문에 전담 연구 조직 '리서치 센터'를 설립하고 증권업계 전문가를 영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백이 된 생활가전사업부장 자리도 채워야 한다. 일단 한종희 부회장이 겸임하고 있지만 책임이 큰 만큼 대체자가 꼭 필요한 상황. 전임자였던 이재승 사장이 생활가전사업부에서는 첫 사장이었던 터라 승진 없이 보직만 맡길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2면에 계속>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멈춰선 유조차

화물연대 총파업 일주일째인 3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현역 유조차 운행하고 있다. 전날 시멘트운송업자와 화물차주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정부는 정유부문의 유류제품 운송업자와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뉴스1

생산·소비 일제히 뒷걸음질 3高에 총파업까지 사면초가

생산 감소폭 2년6개월來 최고치
소비도 0.2% 줄어 두달 연속 하향

지난달 전체 산업 생산이 1.5% 감소하며 4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소비도 두 달째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물가에 금리까지 오르며 내수가 악화되고 있는데 화물연대에 이어 지하철-철도 노조까지 연쇄 총파업에 나서 경제상황이 사면초가에 갇힌 모양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22년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은 전월보다 1.5% 감소하며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감소 폭은 2020년 4월(-1.8%) 이후 2년 6개월 만에 가장 컸다.

산업별로 보면 광공업 생산은 전월보다 3.5% 감소하며 4개월째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이 또한 2020년 5월(-7.3%) 이후 2년 5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이다. 반도체 조립 장비 등 기계장비(-7.9%)와 자동차(-7.3%) 등에서 크게

감소했다. 제조업 생산도 전월보다 3.6% 감소했고,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2.4%로 전월대비 2.8%포인트 줄었다. 서비스업 생산 역시 0.8% 줄며 2개월째 하락세를 보였고, 2020년 12월(-1.0%) 이후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소비 동향을 나타내는 소매판매는 0.2% 감소하며 두 달 연속 하향세다. 승용차 등 내구재(-4.3%) 판매, 의류 등 준내구재(-2.5%) 판매가 각각 줄어들었다.

정부는 최근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화물연대 등의 총파업이 경기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어윤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향후 광공업 생산의 경우 화물연대 총파업, 수출 둔화 등의 영향이 있을 것"이라면서 "여기에 물가, 금리 상승 상황에서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가 회복 흐름을 지속할 수 있는지, 수출과 제조업은 중국 경기 성장이 얼마나 빨리 안정을 찾는지 등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신용스프레드' 금융위기 수준 넘었다

단기자금시장 돈맥경화 심화
정부 안정대책에도 진정 안돼

신용스프레드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시대 수준을 넘어선 자금지장이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정부의 채권시장 안정 대책에도 경기 침체와 신용위험 동반 리스크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모습이다.

3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국고채 3년물과 신용등급 A-A- 회사채 3년물 간의 신용스프레드는 176.2bp(1bp=0.01%p)로 집계됐다. 2008년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4월 29일 172bp를 웃도는 수치로 13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이다.

신용스프레드가 커질수록 시장이 회사채 투자 위험을 높게 본다는 걸 의미한다. 이에 따라 기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는 등 단기자금시장에 '돈맥경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업 단기자금 시장의 바로미터인 91일물 기업어음(CP) 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0.01%포인트(p) 오른 5.53%로 나타났다.

올해 초 1%대이던 CP 금리는 지난 9월 22일부터 46거래일 연속 연고점을 경신했다.

CP 금리는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서서히 오르기 시작했고, 이후 레고랜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

업어음(ABCP) 사태에 따른 자금경색이 심화되면서 이달 들어 5%대를 넘어섰다. 자금 경색으로 기업들이 CP시장에 몰려들면서다.

특히 11월 들어 미국, 유럽, 중국 등 여타 주요국과 달리 국내의 경우 신용스프레드 확대가 이어지고 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경우)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역전 폭 확대로 경기 침체 논란이 거셌지만, 아직 신용 위험으로 전이되거나 신용위험을 증폭시키지 않고 있다"며 "미국의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와 신용스프레드는 11월 들어 동조화 추세가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6면에 계속>

/박미경 기자 mikyung96@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尹-빈 살만 엑스포 빅딜설'에 대통령실 "수준 이하의 저질 공세"
- ▲ '교육세 대학-초·중등 분배' 협의... 조희연 "검토 바람직" /사진 뉴스1

- ▲ 예결위, '공공분양'vs '공공임대' 등이 견차 조정 시도
- ▲ 백악관, 한·미 등 5개국 내년 민주정상회의 공동 주최 발표



- ▲ 여야, 전국여성대회서 "성평등 인식 개선" 한목소리 /사진 뉴스1
- ▲ 검찰, 송영길 허위사실공표 혐의 불기소 "증거 부족"

“미래모빌리티 위한 GSO 신설… 경영 불확실성에 대비”

(글로벌 전략 오피스)

현대차그룹, 대표이사 등 임원인사
동커볼케 CCO·부사장, 사장 승진
AAM 등 고객경험 디자인 주도

글로벌 대표이사에 이규복 승진
재무·해외판매 등 전략기획 전문가

현대자동차그룹이 원자재가격 상승과 글로벌 경기 침체 등 외부 악재에 대응하고 미래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속도를 높인다.

현대차그룹은 30일 루크 동커볼케 최고창조책임자(CCO·부사장)를 사장으로 승진시키는 등 2022년 대표이사·사장단 임원 인사를 발표했다. 특히 미래 모빌리티 그룹 전환에 속도를 내고자 컨트롤타워를 신설한 것도 눈에 띄는 변화다.

현대차그룹은 “글로벌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 장기화에 대비한 위기 대응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면서 미래 사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성과를 기반으로 핵심 인재를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동커볼케 사장은 현대차와 기아, 제



루크 동커볼케 현대차그룹 사장



이규복 현대글로벌 대표이사

네시스의 브랜드 정체성과 지향점을 구축하고 그룹의 다양한 창조적 프로젝트 실행을 이끌어 온 인물이다.

그룹의 주요 신사업 분야인 미래항공 모빌리티(AAM) 등 미래 이동수단과 연계한 고객 경험 디자인을 주도하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 제네시스의 브랜드 별 정체성과 지향점을 명확히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최근 현대차그룹의 다양한 크리에이티브 프로젝트의 방향을 제시하고 실행을 이끌었다. 동커볼케 사장은 향후에도 그룹 CC

O 역할을 유지함으로써 현대차·기아·제네시스의 브랜드 정체성 강화 등을 통해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을 주도할 예정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물류 계열사 현대글로벌 대표이사에는 현대차 프로세스혁신사업부의 이규복 전무가 부사장 승진과 함께 내정됐다. 이 부사장은 유럽지역 판매법인장, 미주지역 생산법인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을 경험한 재무·해외판매 기반 전략기획 전문가다.

그룹 전반과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글로벌 역량이 탁월해 세계 시장을 공략하는 스마트 물류기업으로서 현대글로벌의 도약을 이끌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 현대차그룹의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을 위한 프로세스 전반의 혁신을 담당해 왔다.

특히 미래 모빌리티 그룹 전환에 속도를 내고자 컨트롤타워를 신설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현대차그룹은 미래 모빌리티 컨트롤타워 조직인 ‘글로벌 전략 오피스(GSO)’를 신설하기로 했다. GSO 부문별 인사와 세부 역할은 다음 달 결정된다.

GSO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모빌리티 서비스 관점에서 미래 전략 방향을 수립하고, 대내외 협업과 사업화 검증에 담당할 예정이다. 또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사결정 기구를 만들어 미래 전략이 신속하고 일관성 있게 실행되도록 이끄는 역할을 한다. 미래 신사업 전략 실행 가속화를 통해 현대글로벌의 글로벌 스마트 물류기업으로의 도약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인사에서 공영운 전략기획담당(사장), 지영조 이노베이션담당(사

장), 김정훈 현대글로벌 대표이사(사장)는 일선에서 물러나 고문 역할을 맡는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선제적인 새해 경영 구상과 안정적 경영 환경을 준비하기 위한 대표이사·사장단 인사”라며 “이어 다음 달 중에 있을 정기 임원인사를 통해 미래 준비를 위한 성과 중심의 인적 쇄신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중대재해, 처벌 중심→자율예방 체계 전환

고용부,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노사 스스로 현장내 위험성평가
사전에 발생요인 제거가 ‘골자’
5년내 사망자 400명대 감축 목표

앞으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감독 중심에서 사고 발생 전 노사의 자율적 예방 조치에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 정책이 바뀐다.

정부는 노사 스스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하고, 정기감독 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시정명령 등 행정·사법 조치하는 조항을 새로 두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를 현행 800여명에서 500명대까지 줄이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관련기사 3면>

고용노동부는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갖추는 내용의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을 30일 발표했다.

◆노사 자율로 중대재해 사전 예방… ‘위험성평가’ 의무화

노사의 자율적 예방 조치란 노사 스스로 현장 내 위험성평가를 실시해 중대재해 발생 요인들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사후 처벌·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독이 아닌 노사가 안전보건에 대한 자율 역량을 갖춰 사고 예방에 중점을 둘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 이번 로드맵의 골자다.

이를 통해 고용부는 우리나라 산재 사망자 수를 지난해 기준 828명에서 오는 2026년까지 400명대로 감축한다는 목표다.

‘위험성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해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13년 도입됐지만 강제성이 없는

데다 자기규율 방식과 맞지 않는 감독과 법령은 그대로 유지돼 다수의 기업이 따르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됐다.

고용부는 당장 내년부터 위험성평가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300인 이상은 내년, 300인 미만은 업종·규모별로 오는 2024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내 사고 위험요인, 실제 사고 발생 사례 등을 토대로 노사가 사고 위험이 큰 작업과 공정을 선제해 평가, 관리를 하게 된다. 노사 스스로 추락이나 끼임 등 사고 위험이 큰 작업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위험 수준을 평가해 안전 관리에 나서는 방식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중대재해 발생 원인이 담긴 재해조사건의서를 공개하고, 기업이 쉽고 간편하게 위험 요인을 발굴·평가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등 다양한 평가 기법을 알려줄 계획이다.

다만, 고용부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부정하게 한 기업에는 시정명령이나 벌칙을 내릴 방침이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개정해 관련 조항도 신설한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중국 베이징에서 한 남성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건강코드를 제시하고 있다. /AP·뉴시스

제조·비제조업 위축… 얼어붙은 中 경제

● **차이나 뉴스 & 리포트**

코로나 감염자 급증에 봉쇄 영향 커

중국 경제가 얼어붙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지난 달 제조업과 비제조업을 불문하고 경기가 일제히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 베이징과 상하이, 광저우 등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도시들이 광범위하게 봉쇄된 영향이 컸다.

30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1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8이다. 전월 대비 1.2포인트(p) 낮아진 것은 물론 시장예상치 49에도 미치지 못했다. 상하이가 전면 봉쇄됐던 4월(47.4)에 거의 근접한 수치다.

PMI는 구매, 생산, 유통 관리자 등이 예상하는 경기 예측 지수다. 50을 넘기면 경기 확장, 미만이면 위축을 뜻한다.

중국의 월별 제조업 PMI가 50을 밑돈 것은 두달째다. 하반기 들어 지난 9월 50.1로 반등에 성공했지만 제조업 허브인 광저우가 봉쇄된 10월 49.2로 꺾였으며, 봉쇄가 대도시로 번지면서 하락세가 가팔라졌다.

생산지수가 47.8로 전월 대비 1.8p

하락했으며, 신규 수주와 원자재 재고, 고용, 배송기간 등 주요 항목들이 모두 임계점에 못 미쳤다.

국가통계국 자오칭허 수석은 “코로나19 감염자가 늘고 대외 상황도 복잡해지면서 경기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비제조업 PMI는 전월 대비 2p 하락한 46.7로 집계됐다. 시장예상치 49를 크게 하회했다. 제조업 PMI와 마찬가지로 지난 4월(41.9) 이후 최저치다.

서비스업 활동지수가 45.1로 악화됐으며, 봉쇄에 따른 이동제한으로 운송과 숙박, 식당, 문화체육 등의 지수는 38에도 못 미쳤다. 신규 수주와 고용 역시 각각 42.3, 45.5에 그쳤다.

캐피탈 이코노믹스 세나웨 중국이코노미스트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서비스 활동에 대한 타격이 컸다”며 “노동자들이 공장에 격리돼 생산활동을 하면서 제조업의 상황이 나아보이지만 실제 봉쇄에 따른 충격이 어느 정도 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 하방 위험은 계속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상미 기자 smahn1@

여성 사장·차세대 임원 등 기대감

>> 1면 ‘JY, 뉴삼성 인사 초읽기’서 계속

여성 임원 승진 규모도 주요 관심사다. LG그룹이 최근 인사를 통해 여성 CEO를 2명이나 배출하는 등 재계가 여성을 중요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여성 사장을 아직 가져보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마케팅센터장인 이영희 부사장을 비롯한 여성 부사장들이 승진할 수 있다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이 회장이 현장을 찾으면 꼭 워킹맘과 간담회를 갖는 등 여성에 대한 높은 관심을 이어왔던 만큼, 회장 취임 후 첫 정기 인사에서도 이같은 기조를 반영할

수 있다는 논리다.

세대 교체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특히 1980년대에 태어난 임원 비중이 얼마나 늘어날지가 관심사다. 이미 13명이 상무로 재직중인 가운데, 최연소는 1985년생 삼성리서치 김태수 상무다. 내년부터 MR 헤드셋과 로봇 등 새로운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전망, 차세대 임원도 미래 먹거리 전문성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용 기자 juk@

탈원전·태양광 시각차 극명... 대폭삭감 vs 증액해야

〈정부〉

〈더민주〉

2023 쟁점예산

에너지 지원 사업

전력수급계획 신재생에너지 비중 ↓
尹 정부, 태양광 지원사업 예산 축소
야당 반발... 최대 2400억 증액 추진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 공약인 태양광 지원 사업 예산이 윤석열 정부 들어 약 27% 대폭 삭감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년도 예산보다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자원통상부(산업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 예산을 전년도 5721억원보다 27.1% 삭감한 4173억원으로 편성했다. 이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이용시설 설치비 용자하거나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하는데, 생산 및 시설자금·운전자금·신산업 용자 3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특히, 전년도 예산안에서 농촌태양광 용자액은 3570억원이었던 반면, 내년도 예산안에서 2011억원으로 편성돼 이번 정부 들어서 바뀐 태양광 발전의 입지를 보여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해당 예산을 분석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심사소위원회에서 우원식 소위원장과 의원들이 예산안 관련 등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 /뉴스시

하면서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은 2021년 결산 기준 총 3991억 7800만원을 용자 지원해 356MW(메가와트)의 태양광 설치 신규 설치를 지원했다"며 "태양광 기준으로 2023년에는 예산 감액에 따라 신규 설비용량이 288MW로 감소할 것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진영마다 시각 다른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

단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를 기치로 2017년 신재생에너지 예산을 전년도보다 3배 이상 늘리면서 의지를 보인 반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 9월 국무조정실이 '신재생

에너지 운영 실태 점검'을 발표하면서 해당 사업에 불법·부당 집행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농촌에서 태양광 발전 설비가 늘어나면서 농산물 수확이 줄어들고 농지 면적이 감소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영에 따라 태양광 지원 사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게 표출되고 있다.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태양광 발전 설비 부품 중 중국산이 많아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친중성향'을 드러낸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과, 탄소중립을 위해서 원전과 석탄 발전을 줄이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

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공약으로 차이가 나타나기도 했다.

◆尹 정부 원전 기초 발전량 전망치에서도 드러나

문재인 정부 시기인 지난 2020년 15년간의 전력 수급 전망, 전력 설비 계획 등을 담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4년까지 가동 연한 30년이 도래하는 석탄발전 3기기를 폐지하고 2022년 26기로 정점을 찍는 원전도 2034년까지 17기로 줄이기로 했다.

대신,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2020년 20.1GW(기가와트)에서 2034년 77.8GW로 약 4배 증가할 것으로 봤다.

제9차 계획에 따르면 전체 에너지 설비 대비 신재생에너지 설비 비중은 2020년 15.8%에서 2034년 40.3%로 확대되고 석탄은 28.1%에서 15%로, 원자력은 18.2%에서 10.1%에서 줄어든다.

반면, 산업부가 지난 29일 공개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정부 초안에 따르면, 2030년 발전량 비중 전망치를 원전 32.4%, 신재생 21.6%, 석탄 19.7로 원전 비중이 늘어나고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대폭 줄어들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태양광 사업 지원 삭감에 반발하며,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 예산에 대해 삭감액보다 많은 최대 2400억원 증액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분석에서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은 향후 확정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충 목표에 동 사업이 미치는 영향과 사업 개선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중장기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예산은 이러한 계획과 비교하여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K-배터리기업, 美 IRA 합종연횡 대응... 공급·투자 확대

적극적 연합 구축... 규제 공동 대응 광물 공급망 다각화, 생산공장 확장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합종연횡으로 대응하며 광물 공급망 다각화를 위한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배터리 3사 모두 부채가 많은 상태지만 '유럽판 IRA' 법안까지 대응해야 할 상황 속에서 투자를 미루기보다는 각종 규제에 대응하며 적극적으로 연합을 구축하는데 심혈을 기울인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 3사로 불리는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은 저마다 전기차 배터리 공급을 위한 투자와 양해각서 체결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IRA에 이어 '유럽판 IRA'



SK온 미국 조지아 공장 전경

/SK온

라고 불리는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CRMA)'까지 내년 초 통과 예정이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배터리 기업들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지고 있다.

유럽연합(EU) 27개국의 공동 시장 규제를 관할하는 유럽 집행위원회(집행

위)는 일찍이 유럽 산업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여러 원료를 '핵심원자재(CRM)'로 지정해 바 있으며, 해당 원자재들은 현재 30여 개에 이른다.

이제까지 집행위가 CRM을 규정하고 공급 리스크를 분석하는 연구만 해 왔다면, 이제는 '내년 1분기 이내로 입

법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배터리 업계를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 아직 CRMA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시행될지는 알 수 없지만 IRA와 같이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띠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

SK온은 이런 대외적인 상황 속에서도 현대자동차그룹과 북미 전기차 배터리 공급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지난 24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사는 현대차그룹의 미국 내 주요 전기차 공장에 SK온 배터리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공급 시점은 오는 2025년 이후가 될 전망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제너럴모터스(GM)의 합작사 '얼티엄셀즈'의 미국 내 두 번째 합작공장을 테네시주에 지으며 연합 체제를 이어가고 있다. LG에너지

솔루션은 호주 시라와 음극재 핵심 소재인 흑연 공급 계약을 맺으며 '흑연'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를 통해 LG에너지솔루션은 향후 5년 내 북미 역내에서 양극재 63%, 음극재 42%, 전해액 100%, 핵심광물 72%를 현지화하는 것이 목표로 내세웠다.

삼성SDI는 스텔란티스와 함께 미국 첫 전기차용 배터리 셀·모듈 합작법인을 설립한다. 합작법인은 올해 말 착공에 들어가 2025년 1분기부터 본격 가동된다. 초기 전기차용 배터리 셀·모듈 생산은 연간 23GWh 규모로 시작해 33GWh로 확장할 전망이다.

정부도 대미 IRA 협의회와 관련해 상·하원에 각각 발의된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을 3년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 통과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산업부는 미 의회를 중심으로 설득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자율 '위험성평가' 가능할까... 노사, 책임소재·규제강화 우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논란

정부, 내년 제재방식 등 개선안 마련

노사 자율에 맡긴 '위험성평가'로 노동자 사망 등의 중대재해 감축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 지적도 있다. 사측과 노동자 간 중대재해 위험 요인에 대한 인식 차가 큰데다 불법파견 등으로 원·하청 간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다는 이유에서다.

30일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 후 노동계는 "안전보건 관

련 직책만 맡겨놓고선 노동자 탓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반면, 경영계는 "자율은 명목뿐이고, 오히려 처벌·감독 등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고용부는 규제·처벌에 방점을 둔 중대재해처벌법이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일 방안인지 고민"이라고 밝혀 법 개정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고용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노사의 자율적 예방 조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감독 중심에서 사고 발생 전

노사의 자율적 예방 조치에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용부는 노사 스스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하고, 정기감독 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시정명령 등 행정·사법 조치를 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여기서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내 사고 위험 요인, 실제 사고 발생 사례 등을 토대로 노사가 사고 위험이 큰 작업과 공정을 선정해 평가, 관리를 하게 된다. 노사 스스로 추락이나 끼임 등 사고 위험이 큰 작업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

고, 위험 수준을 평가해 안전 관리에 나서는 방식이다.

◆노동계 "노동자 탓만"...경영계 "자율은 명목뿐, 규제만 강화"

하지만, 노동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안전불감증이 여전한데다 대기업·중소기업 간, 원·하청 간 안전보건 관련 설비와 지원 격차가 상당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노사 자율에 맡기면 사망사고 위험이 더 커질 수 있고, 사고 발생 시 책임도 불분명해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노동자 참여 없는 사상누각의 자율안전 대책"이

라고 꼬집었다. 한국노총도 "관리감독자의 권한과 여건 등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 발생 시 노동자 책임만 강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영계는 자율보다 처벌·감독 등 규제 강화가 우려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보안을 주장했다.

정부는 로드맵 발표 후 중대재해처벌법 논란으로 확산되자 제재 방식 등 개선안을 내년에 마련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내년 상반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할 것"이라며 "내년 하반기 정기국회를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에 대비해 법령을 정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교섭 40분 만에 결렬... 업무개시명령 가처분 신청 '맞불'

정부-화물연대 2차 협상

정부 "명분별기용 만남 의미 없어" 화물연대 "정부, 대화의지 없어" 업무개시명령에 기본권 침해 반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참여한 화물차 기사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이 송달되면서 정부의 압박이 본격 시작됐다. 화물연대 측은 법원에 업무개시명령을 집행정지하고 취소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예고한 상태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집단 운송 거부 7일차에 접어들어 지난달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협상을 진행했으나, 면담 시작 40분 만에 결렬돼 강대강 대치가 지속될 전망이다.

양측은 이날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부는 안전 운임제를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적으로 제도화하고 적용 품목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의 한 시멘트 운송업체 현장조사에 나선 뒤 기자들을 만나 "운송거부를 계속 끌고 가기 위해 시간을 끄는 식의 명분 별기용 형식적 만남은 의미 없다"고 밝혔다. 면담 이후 화물연대 측은 "윤석



구현상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 등 정부 측과 김태영 화물연대본부 수석부위원장 등 화물연대 측이 지난달 30일 2차 교섭을 위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마주 앉아 있다. /뉴시스

열 정부와 국토부는 대화 의지가 전혀 없다"면서 "진정성 있는 협상안을 갖고 나왔으나 협상 불가라는 정부 이야기에 대화를 이어가지 못했다"고 밝혔다.

◆시멘트 화물차 기사 300명에 명령서 송달... "즉시 업무복귀" 압박

정부는 2차 면담이 성과없이 종료되면서 업무개시명령을 집행하며 압박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반면, 화물연대 측은 명령서 송달을 회피하거나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대응하고 있어 추가적인 협상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업무개시 명령이 내려진 직후 시멘트 운송업체를 상대로 즉각 현장조사를 벌여 이날 시멘트 분야 운송 종사자 2500여명의 약 15% 수준인 300여명에 대해 명령서를 송달했다.

아울러, 이날부터 국토부와 지자체, 경찰 등으로 구성된 76개 조시팀을 전국 약 200여개 시멘트 운송사로 파견해 현장 조사를 벌여 운송 거부자를 추가로 파악해 명령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명령서 송달 인원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장조사에선 화물차주가 집단 운송 거부에 참여하는지 여부나 업무를 하지 않는 이유 등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화물차주 주소나 연락처 파악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총파업에 참여하는 화물 기사들이 명령서 송달 자체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행정명령을 무력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의 효과가 즉각 나타나

기 힘들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의 경우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보낼 수 있어 쉽지 않다. 지난 2020년 전공의 파업 당시엔 파업 참여자들이 휴대 전화를 꺼놓아 유선을 이용한 명령서 송달이 어려웠었다.

국토부는 우선 화물차 기사 본인이나 가족에게 우편으로 등기를 전달하고, 등기 전달이 힘들 경우 공시 송달 절차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공시 송달은 정부가 관보나 일간지 등에 명령서 내용을 일정 기간 게재하면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보통 14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긴급 상황이어서 3일 후 효력이 발생하도록 공시할 방침이다.

명령서를 받은 화물차 기사는 다음 날 자정까지 복귀해야 하고, 이를 거부하면 운행정지나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건강, 학업, 이직, 가족 사망 등이며, 이번 처럼 특정 제도에 대한 반대 의사 표명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화물연대, 법원에 업무개시명령 취소 가처분 신청 '법적 대응'

화물연대 측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운송 사업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명령서 수령을 가급적 회피하고, 법원에 업무개시명령을 취소하고 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에 나설 방침이다.

화물연대 시멘트 화물 노동자들은 지난달 30일 인천시 중구 인천라시멘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업무개시명령은 위헌 소지가 있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반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화물연대는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고 정부의 탄압에 맞선 더 힘찬 총파업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대응 강도를 높여갈 것임을 시사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정치적 파업” vs “인력감축 철회” 대립

(오세훈 서울시장)

(노조)

서울교통공사 노조 대규모 총파업 출근길 대란은 피했지만 곳곳 혼란 강대강 대치에 장기화 가능성 커져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서울시의 인력 구조조정 계획에 반기를 들며 지난달 30일부터 총파업에 나선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를 '정치적인 파업'이라고 규정하고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쳐 파업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공사 노조 파업에 대비해 서울시가 퇴직자와 협력업체 직원을 총집결해 평시 인력 대비 83% 수준인 1만3000여명을 확보하는 등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하면서 이날 오전 출근길 대란은 피했다. 하지만 공사 노사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파업이 길어지면 출·퇴근길 교통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춧불집회 이후 저희 조합원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 집회가 없었다. 함께 싸워 승리하자!”

지난달 30일 오전 10시50분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서울시청 서측에서 5000여명이 참여한 대규모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했다. '노동조건 개선! 안전인력 충원!'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몸피를 메고, '인력감축 철회하고 노사정 합의 이행하라'는 글이 적힌 파란색 피켓을 든 공사 노조원들이 이날 오전 서울 시청역 4번출구 앞에서부터 대한문 건너편 서울광장까지를 가득 메웠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서울교통공사는 인력을 충원하겠노라고 약속했다. 오세훈 시장은 그것을 뒤집었다.

이 정권은, 서울시, 노동자들의 안전과 시민들의 안전은 뒷전인 채로 오로지 공공기관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려는 의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공사는 지난 5월 승무원력 증원을 약속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재정 긴축을 강조하면서 공공부문에서 인건비 지출을 줄이라고 지시하자 오 시장이 이에 발맞춰 구조조정의 칼을 빼 들어 무산됐다.

양 위원장은 "노동자들의 안전이 보장됐다면 구의역 급근 사고도, 신당역 사고도, 이태원 참사도 막을 수 있었다. 누가 이 책임을 져야 하나"면서 "대통령이, 서울시장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으면 사과하고 노동자들의 인력을 충원하고 현장 안전을 담보해야 하는데 자신들의 책임은 뒤로한 채로 모든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서울 지하철 노동자들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교통공사 사용자 측이 재정적자를 이유로 2026년까지 정원의 약 10%에 달하는 1539명을 줄이려 하는 것에 반발해 이번 총파업을 벌였다. 공사 노조는 서울시의 이 같은 인력 감축안을 2인 승무를 1인 승무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 일부 업무를 자회사로 넘기거나 외주화하고, 근무제도를 개악해 노동강도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보고 있다. 노동자들을 혹독하게 쥐어짜 인건비 지출을 줄이려는 신자유주의 공격이라는 것이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과 오세훈 시장은 수차례의

경고에도 우리 서울교통공사 조합원들을 총파업으로 내몰았다"며 "신당역 참사, 이태원 참사, 오봉역 참사... 언제까지 우리가, 시민이 이렇게 죽어가야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공사 노조 파업에 대해 어떤 입장이냐'고 묻는 말에 "이번 파업의 경우 저는 정치적인 파업이라고 개념 정의를 하고 싶다"면서 "사실 표면적으로 내세운 파업의 이유는 구조조정 철회, 혁신 안 철회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지금 본격화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파업과 그 배경으로는 다 연결돼 있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이다"고 답변했다.

이어 "실제로 이번 (노사) 협상 결렬 과정에서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 있는 여러 장면이 목격되기도 했다"면서 "서울시민의 출퇴근길, 서울시민의 발을 볼모로 잡아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노총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데 서울교통공사의 파업이 그 수단으로 이용된다면 서울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부터 시작된 서울 지하철 파업과 관련해 시민들은 "누구나 노동자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을 필요가 있고 그것을 위해 싸울 수 있다. 안 그래도 인력이 부족하다는데 인원을 더 감축시킨다는 건 노동자의 고크를 빼먹으면서 비용 절감을 하겠다는 건데 말도 안 된다", "지하철 파업이어서 30분 일찍 나왔는데 바로 와서 당황했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현정 기자 hki@

주유소 곳곳 휘발유 품질... 기름대란 우려

품질 주유소 서울 15곳 등 전국 23곳 이창양 "품질 현황 등 실시간 파악 필요시 정유도 업무개시명령 강구"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가 7일차에 접어들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휘발유와 경유가 품질되는 상황이 늘고 있다. 정부는 긴급 수송체계 가동 현황 점검에 나섰다. 필요시 시멘트 분야와 함께 정유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도 강구할 방침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이수역 인근 휘발유 품질 주유소 현장을 방문해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따른 영향을 살피고 긴급수송체계 가동현황을 점검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날 8시를 기준으로 전국의 품질 주유소는 총 23개소(휘발유 22개소, 경유 1개소)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5개소로 가장 많고, 경기 3개소, 인천 2개소, 충남 3개소다.

이 장관은 현장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로 인한 석유제품 유통 차질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업계의 경제적 피해와 일반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앞서 지난달 24일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이후 즉시 '정유업계 비상상황반' (반장 자원산업정책국장)을 구성·운영 중이다. 비상상황반은 정유 공장·저유소 등 주요거점별 입·출하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수송차질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정유사간 협조, 화물연대 미가입 차량 등을 활용한 비상수송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또 운송거부 사태가 지속되면서 석유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주유소 유가정보판에 휘발유 품질 표시가 돼 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유조차 운행이 중단되면서 휘발유가 품질된 주유소가 늘어나고 있다. /뉴시스

제품 수송차질이 점차 심화될 상황에 대비해 군용 탱크로리 5대, 수협 보유 탱크로리 13대를 내달 1일부터 긴급 투입해 운영할 예정이며, 추가 대체수송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

이창양 장관은 "품질 주유소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대응 중"이라며 "일반 서민들의 생활에 지대한 불편을 끼칠 수 있는 현재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가 조속히 업무에 복귀해야 하며, 필요시 시멘트 분야에 이어 정유 분야에도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노란봉투법’ 상정... 與 “민주노총 방탄법” 野 “직무유기”

민주, 환노위 법안소위서 단독상정 국민의힘, 강하게 반발하며 퇴장 野, 노조법 10건 우선 심사 요청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언쟁을 벌이다 회의장 밖으로 나가고 있다. /뉴시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개정안)’을 단독 상정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안전 상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퇴장했다.

환노위는 30일 오전 10시에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 등 노동법 개정안 10건을 추가 상정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11월 17일 입법공청회도 열었고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노조법 개정안과 관련해 여러 논의가 있었다. 그런데 아직 상정조차 안하는 것은 국회 본연의 일을 망각한 것”이라며 노조법 10건에 대한 우선 심사를 요청했다.

노란봉투법은 재계와 노동계의 이해가 첨예하게 갈리면서 환노위 최대 쟁점법안으로 꼽힌다.

환노위 법안소위는 민주당 4명, 국민의힘 3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있어 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상정시킬 수 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도 소위 위원장을 맡은 김영진 의원을 비롯해 윤건영·이수진(비례)·전용기 민주당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전원 찬성하면서 노란봉투법은 다수결에 따라 상정됐다.

국민의힘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난번 입법

공청회를 통해 노조법을 개정하면 안된다는 것이 국민의힘 당론”이라며 “헌법상으로도 합법적인 파업이 보장돼 있는데 굳이 이걸 개정하려는 것은 정치적인 논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이에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충분한 논의나 검토 없이 불법노조법이라고 단언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반박에 나서면서 임 의원과 이 의원 간 언쟁이 오가기도 했다.

소위원장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충분한 논의를 갖고 그 속에서 최대 공약수가 무엇인지 찾아가는 그런 고뇌의 과정이 국회 소위원회”라며 “여당이 저렇게 일방적으로 파업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나가는 것은 타당한 처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이 결국 야당 단독으로 상정됐으나 여야 간 입장 차가 크기 때문에 향후 법안심사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임 의원은 법안소위 퇴장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 조장법 ▲민주노총 방탄법 ▲노사 혼란 조성법 ▲피해자 양산법이라며 “헌법상 사유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현재도 우리 헌법과 노동조합법은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고, 정당한 파업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폭력·파괴행위를 한 노조에 대해 배상 책임을 완전히 면제하고, 노조의 책임도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그야말로 민주노총에 의한, 민주노총을 위한, 민주노총 방탄법이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힘 있는 거대 노조에게 더욱 힘을 실어줘 노동시장의 양극화만 확대시킬 것”이라며 “야당 의원님들께 노조법 개정안의 일방적인 상정을 철회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백정의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민주, ‘이상민 해임안’ 尹 거부시 탄핵소추

해임안 발의 후 尹 결단 기다리기로 與 “이재명 방탄용 해임건의안”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리기로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에서) 해임건의안 가결 이후에도 본인이 자진 사퇴하지 않거나 대통령이 또 다시 거부하면 민주당은 이번 주 주말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매듭짓겠다. 이상민 장관의 지해로운 판단과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30일에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했으나 전날(29일)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형식과 일정을 확정 짓지 못했다. 해임건의안 발의를 건너 뛰고 곧바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거라는 추측이 있었으나, 결국 해임건의안을 발의해 처리한 후 윤 대통령의 응답이 없으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입장에서

극단적 대처 상황까지 이를 수 있는 탄핵소추안 발의 전까지 시간을 벌어놓은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다.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158명이 희생됐고 196명이다. 국가 대참사의 충격이 지금껏 계속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꼬리자르기, 남탓만하고 있다”며 “집권여당은 국정조사 진상규명 방해에만 열중하고 있다. 책임자 파면, 유족의 절규와 공분을 국회가 더 이상 지켜만 봐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난안전 예방 및 관리에 정부 책임자로서 경찰과 소방의 지휘라인 정점에 있는 이 장관의 실책은 명백하다”며 “국민 안전 업무 주무장관으로서, 이태원 참사 발생과 대처 과정에서 경찰과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던 식으로 수차례 상황을 오만하고 호도했다. (또한) ‘법적 책임이 없다’, ‘쏟아져 사표 쓰고 싶다’는 말로 유가족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장관이 직을 유지

하는 상황에서 국정조사나 경찰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리 없다. 경찰과 소방의 고위직 인사권을 가진 장관이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경찰, 소방 공무원과 용산구청 관계자가 제대로 자료를 제출하고 증언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 제출이 사법리스크의 중심에 놓인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용’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국 민주당이 민주당하고 말이다.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한 ‘인질정치’는 예상을 빚아가는 법이 없다”면서 “오늘로써 민주당은 협치와 민생을 땅에 묻었다. 그리고 그 위에 이 대표 방탄 기념비를 세웠다. 이제 민주당에게 국정조사라는 단어는 우선과 같은 말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합의 정신을 먼저 파기하고 제대로 된 조사를 시작도 하기 전에 ‘보나 마나 국정조사’로 만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태홍 기자 pth7285@

김진표, 예산 부수법안 25건 지정·통보

(국회의장)

“협치의 정신 발휘할 때”

김진표 국회의장이 2023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부수법안) 25건을 지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이날까지 예산법안 심사가 완료되지 못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이날 지정된 예산 부수법안은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김 의장은 30일 법인세법·소득세법 등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15건과

유아교육특별회계의 일몰기한 연장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의원발의 개정안 10건을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김 의장은 “금리 인상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 국회가 머리를 맞대 국민을 위한 예산과 세법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협치의 정신을 발휘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입증감 여부, 정부예산안 반영 여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상

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수법안을 지정했다”며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의 심사가 완료되지 못한 상황이지만, 본회의로 부의된 이후에도 여야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조속히 합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법 제85조의3 ‘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부의 등’에 따르면 위원회는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하고,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12월 1일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백정의 기자

尹-바이든, 내년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최

대통령실 “민주화 경험 등 공유 윤석열 정부 가치외교 지평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내년 3월 29~30일 양일간 진행되는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공동 주최한다.

3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상회의 첫날인 3월 29일에는 화상 본회의가, 둘째 날인 3월 30일에는 각 공동주최국이 주도하는 지역회의가 진행된다.

이번 정상회의는 세계 각 대륙을 대표하는 5개의 국가가 전체 회의를 주최하는 미국과 함께 공동주최국을 맡았다. 미국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한국이, 유럽은 네덜란드, 아프리카에서는 잠비아, 중남미에서 코스타리카가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공동 주최한다.

첫날 화상 본회의에서는 공동주최국 정상이 회의를 주재하고, 윤 대통령은 둘째 날 지역회의에서 ‘인·태지역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인·태지역 회의의 주제는 ‘반부패’로 이 회의에는 각국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들도 참여한다.

대통령실은 “역내 선도적 민주주의 국가로서 우리의 민주화 경험과 반부패 노력 등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이를 계기로 가치외교의 지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주최국 정상 5명은 ‘공동발표문’을 통해 민주주의 모델의 활력과 우리 시대의 전례 없는 도전에 맞서기 위한 집단 행동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상들은 “이번 회의는 민주주의가 어떻게 시민들의 삶에 기여하고 세계의 가장 시급한 도전을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준비가 돼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내년 3월 29~30일 양일간 진행되는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공동 주최한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1월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 계기 한미정상회담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

이어 “우리는 책임 있고 투명한 거버넌스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되는 시기를 살고 있다. 침략 전쟁과 기후 변화, 사회적 불신과 기술 변혁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각계각층에서 민주주의가 챔피언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보다 명확할 수가 없다”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한 여타 초청국들과 함께, 우리는 이러한 요청에 부응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거버넌스가 항구적인 번영, 평화와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최상의 방안임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 함께 정상회의 파트너들이 ‘행동의 해(Year of Action)’ 기간에 이룬 공약에 대한 진전 사항을 보여줄 것”이라며 “또 한 차례의 성공적인 정상회의와 민주주의 부흥을 향한 구체적인 행동이 가속화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주도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2021년 12월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이 돌아왔다’는 슬로건 아래 권위주의 부상과 민주주의 퇴조에 대응하기 위해 개최했으며 ▲반부패 ▲탈권위주의 ▲인권 증진 등의 의제로 한국을 포함한 약 110개국 정상이 참여했다.

/백정의 기자



World EXPO 2030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신한금융그룹이 응원합니다
BUSAN, KOREA



모두가 꿈꾸는 내일의 금융 세상, AI로 그려보았습니다



AI 입력 키워드:

모두의 잠재력이 기회와 만나고
 작은 스타트업도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이 되는 세상
 어르신들도 디지털 금융을 손쉽게 쓰고
 지구의 공기까지 100년 전처럼 맑아진 세상 ...

*광고에 쓰인 이미지는 AI 아트 생성 프로그램 Midjourney의 작품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 신한캐피탈 신한자산운용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신한자산신탁 신한DS 신한아이타스 신한리츠운용 신한AI 신한벤처투자 신한EZ손해보험

+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  신한금융그룹

오늘 후 계약하면 연내 출고... “개소세 종료 전 서두르세요”

정부, 개소세 30% 인하 종료 움직임
르노코리아 10월 판매량 66.6% ↑
QM6·XM3·SM6 등 연말까지 출고

한국지엠 290% 증가 6811대 판매
트레일블레이저 등 5종 연내 인도

쌍용 보증기간 연장 등 혜택 제공
렉스턴 2종·코란도 등 연내 출고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르노코리아자동차 QM6.

국내 완성차 업계가 연말 개별소비세 (이하 개소세) 인하 종료로 앞두고 생산 물량 확대에 나서는 등 분위기 반등에 나서고 있다.

특히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과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현대차·기아의 인기 차종의 경우 고객 인도 시점도 늦어지고 있다. 정부가 올 연말까지 차를 구입할 때 30% 인하해주는 개소세를 종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소비자들은 빠른 차량 출고가 가능한 모델로 이동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이에 르노코리아자동차와 쌍용자동차, 쉐보레(한국지엠) 등 이른바 ‘르쌍쉐’는 인기 차량을 앞세워 판매량 확대 조짐을 보이고 있다.

30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화물연대

파업으로 출고일이 일주일에서 열흘까지 미뤄지고 있으며 소비자들에게는 과업 장기화에 따라 인도 시점이 무기한으로 지연될 수 있다는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로드탁송(직원이 직접 고객에게 차량을 인도하는 방식)을 거부할 경우 파업 이후 차량을 인도받아 사실상 올해 개소세 혜택을 못받을 가능성도 높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개소세 인하 조치가 올 연말 종료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차량 출고가 빠른 르쌍쉐가 반사이익을 보는 분위기다.

르쌍쉐는 지난 10월 전년 동월대비 가파른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르노코리아는 지난 10월 전년 동기 대비 65.6% 증가한 1만9258대의 판매실적을

기록했다. QM6는 지난달 2007대 판매되며 내수 판매를 이끌었으며 SM6는 전년 동기 대비 38.5% 증가한 475대를 기록했다.

한국지엠은 같은 기간 전년 동기 대비 290% 증가한 2만 6811대를 판매했다. 이는 올해 들어 최대 증가폭이다. 내수 판매는 트레일블레이저와 스파크 등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63.3% 증가한 4070대를 기록했다. 쌍용차도 지난 10월 전년 동기 대비 177.0% 증가한 총 1만 3156대를 판매했다.

아직까지 연말까지 출고될 수 있는 모델이 많지 않은 가운데 르쌍쉐는 물량 확보를 통해 이달 차량을 계약하면 연말까지 출고할 수 있도록 물량을 확보해 판

매 상승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우선 르노코리아는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QM6와 XM3, SM6 등을 이달 계약하면 연말까지 출고가 가능하다. 다만 XM3 E-TECH 하이브리드 모델은 차량용 반도체와 사전 계약 5000대를 넘기면서 연말 출고는 힘든 상황이다.

한국지엠 쉐보레는 다양한 차종을 선택할 수 있다. 쉐보레는 트레일블레이저와 아퀴눅스, 트래버스, 타호, 콜로라도 등을 연말까지 고객 인도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쉐보레는 11월 프로모션을 통해 업계 최저 할부 금리와 현금지원 등 파격구

매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폴사이즈 SUV 타호는 콤보 할부 프로그램을 통해 구입하면 300만원 현금 할인과 이율 6.5%의 72개월 할부를 제공한다.

쌍용차는 올 뉴 렉스턴과 뉴 렉스턴 스포츠&칸, 코란도, 티볼리 등에 대해 이달 계약시 연말까지 고객에게 인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차량 모델 별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할부 프로그램 운영과 보증기간 연장 혜택, 여행 상품권 지급 등을 제공한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올해 연말 개소세 인하 종료 움직임을 보이면서 소비자들의 분위기도 바뀌고 있다”며 “특히 연말 완성차 브랜드들이 할인과 할부 등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준비하고 있어 상승기조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쌍용차 뉴 렉스턴 스포츠칸.

삼성전자, 日 기업에 5G장비 공급 늘린다

NTT도코모와 공급확대 협력
주파수 대역별 기지국 공급받아

삼성전자가 품질에 예민한 일본에서 5G 이동통신 장비 공급을 늘리게 됐다.

삼성전자는 일본 NTT도코모에 5G 이동통신장비 공급을 늘리는 추가 협력을 이어간다고 30일 밝혔다.

NTT도코모는 일본에서 약 8400만명 가입자를 보유한 이동통신사업자다. 지난해 3월에도 삼성전자와 5G 이동통신 장비 공급을 체결했으며, 앞으로 주요 5G 주파수 대역별 기지국도 새로 공급받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인구밀집도가 높고 서비스 품질을 중시하는 일본 시장에서 추가로 5G 장비를 공급한 데 대해 기술력을 입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28㎓ 초고주파대역을 지원하는 4.5kg의 초경량, 초소형 5G 라디오 기지국도 포함해 공급한다. 도심이나 사용자 밀집 지역에 설치하기 쉬워 효과적으로 데이터 트래픽을 지원할 수 있다.

NTT 도코모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 개발부 마스다 마사후미(Masuda Masafumi) 부장(General Manager)은 “NTT 도코모는 삼성전자와 5G 초창기부터 협력을 시작하여, 오픈랜(Open R

AN) 등 5G 비전을 함께 실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네트워크 혁신을 통해 고객의 요구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며 글로벌 리더십을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일본법인 네트워크 사업총괄 이와오 사토시(Iwao Satoshi) 상무는 “이동통신장비 시장은 사업자와 공급사간 오랜 시간에 걸친 신뢰관계의 구축과 차세대 기술에 대한 공동의 투자가 관건”이라며, “삼성의 앞선 기술력에 기반한 우수한 5G 제품 공급을 통해 NTT 도코모의 5G 네트워크 고도화를 함께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재용 기자 juk@

대한항공, 中·동남아 노선에 ‘프리미엄 좌석’

소형항공기 비즈니스 클래스에
‘에어버스 A321네오’ 도입

국내 항공업계에 프리미엄 바람이 불고 있다. 과거 미국, 유럽 등 장거리 노선에서 선보였던 프리미엄 좌석을 중국과 동남아 등 단거리 노선 탑승객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대한항공이 국내 항공사로는 처음으로 소형 항공기 비즈니스 클래스에 180도 완전 평면으로 펼쳐지는 좌석을 장착한 에어버스 A321네오(neo)를 도입하고 12월부터 운항에 나선다.

30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A321네오는 182석 규모의 협동체(단일 통로) 소형 항공기다. 동남아, 중국, 일본 등 단거리 노선에 주로 투입된다. 기내 와이파이, 첨단화한 개인형 기내엔터테인먼트 시스템 등을 갖췄다. 대한항공 A321네오는 프레스티지 8석, 이코노미 174석 등 총 182석으로 꾸며졌다.

프레스티지석은 대한항공 협동체 소형



대한항공 A321neo 항공기 프레스티지 좌석. /대한항공

여객기 중 최초로 180도 완전 평면으로 펼쳐지는 8개의 침대형 좌석이 최대한의 공간을 제공하도록 사선으로 배치된다.

해당 좌석에는 44cm 크기의 주면형 오디오비디오(AVOD) 모니터가 장착된다. 전기 아이콘이 표시된 좌석의 팔걸이 부분에 휴대폰을 올려놓기만 하면 무선충전이 가능한 장치를 추가했다. 이코노미 좌석에는 기존보다 10cm 더 커진 33cm의 개인용 모니터로 기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양성운 기자

GS그룹, 조직 안정에 방점... 대부분 유임

2023년도 임원 32명 인사 발표

GS그룹이 2023년 인사를 발표했다. 경영 안정성과 위기 대응력 제고 위해 주요 계열사 대표 대부분 유임한다. GS그룹은 ‘변화’ 보다는 ‘안정’을 택하며 변동성이 큰 시대에 ‘중단 없는 리더십’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30일 GS그룹은 ▲부사장 승진 2명 ▲전무 승진 6명 ▲상무 신규 선임 21명 ▲전배 3명 등 총 32명에 대한 2023년도 임원 인사를 내정했다. 이번 임원인사는 각 계열사별 이사회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발령일은 내년 1월 1일이다.

이번 인사의 가장 큰 특징은 주요 계열사의 대표이사를 대부분 유임했다는 점이다. GS그룹 측은 “이는 올 한 해 대

부분의 계열사들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성과를 창출하였을 뿐 아니라, 내년 이후 사업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경영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기하는 동시에 위기대응 역량을 제고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언급했다.

즉, 유가와 환율, 금리, 국제경기 등 GS가 영위하는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변동성이 크고 이에 대한 민첩한 대응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는 점에서 중단 없는 리더십이라는 가치에 금번 인사의 중심을 맞췄다는 분석이다.

GS 측은 “허태수 회장 부임이후 최근 3년간 GS그룹 전반의 체질 개선과 혁신이 뿌리를 내리고 양호한 실적을 기록하는 등 성과를 창출했다는 점에서



이태형 GS CFO겸 PM팀장 부사장



김상수 GS칼텍스 M&M본부장 부사장

현 경영진의 연륜과 경험을 통해 지속 성장과 혁신의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려는 포석”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GS의 재무팀장(CFO) 겸 PM팀장인 이태형 전무가 부사장으로 승진한다. 이태형 부사장은 GS그룹 내 사업 전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도 새로운 사업 기회 발굴을 적극 지원해 왔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성수동 ‘광야@서울’에 투명 OLED 깔았다

LG디스플레이, T-플로어 솔루션 적용

LG디스플레이 투명 OLED가 ‘광야’ 바닥을 장식한다.

LG디스플레이는 서울 성수동 ‘광야@서울’에 투명 OLED 플로어(T-플로어) 솔루션을 처음 적용했다고 30일 밝혔다.

광야@서울은 SM브랜드마케팅이 만든 신규 플래그십 스토어다. 활용하기 어려웠던 바닥에도 투명 OLED를 적용

해 프로모션 효과와 공간 활용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LG디스플레이는 라온지 바닥에 55인치 투명 OLED 33대를 설치했다. 음반 및 아이돌 굿즈 상품을 진열하고 다양한 그래픽 효과와 상품 정보를 홀로그램처럼 구현해 쇼핑 경험을 극대화했다.

T-플로어는 원하는 크기로 무한히 확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발열이 적고 특수 강화 유리로 큰 하중도 안전하게 견딜 수 있다.

/김재용 기자

현대모비스, 독자개발 '연료전지 파워팩' 수소지게차 탑재

국내 최초 국가인증통합 취득 수소모빌리티 실증사업 시작 5분내 충전, 5시간 연속 사용 내년 대규모 플릿 운행 추진

현대모비스가 독자 개발한 이동형 연료전지 파워팩이 수소모빌리티 실증 사업에 본격 투입된다. 이를 계기로 산업과 건설기계, 대형 운송수단 등으로 수소모빌리티의 확장성이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대모비스는 30일 울산 KD센터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울산테크노파크, 현대제뉴인과 현대글로벌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료전지 파워팩을 탑재한 수소지게차의 실증 사업을 시작하는 '킵 오프(Kick-Off)'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수소연료전지 물류운반기계 상용화 실증 사업에 투입되는 5톤급 중형 수소지게차는 현대모비스와 현대제뉴인이 공동개발했다. 5분 내 급속 충전이 가능



수소모빌리티 실증사업이 진행되는 현대글로벌 울산 KD 센터에서 작업자가 수소지게차를 이용해 작업을 하고 있다.

하고 한번 충전으로 5시간 동안 연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실증사업에 투입되는 연료전지 파워팩은 수소로 전기를 생산하는 일종의 발전기다. 최대출력이 50kW로, 한번 충전하면 4인 가족 기준으로 가정에

서 사용하는 5일 치분량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응이 일어나는 연료전지스택과 냉각장치, 고전압배터리, 수소탱크 등을 통합한 일체형 시스템이다. 현대모비스가 양산 중인 수소

전기차의 연료전지시스템을 활용해 지게차용 연료전지 파워팩을 독자개발했다.

수소지게차 시범 운행은 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내 이동식 수소충전소가 가능한 현대글로벌 KD 센터에서 진행된다. 현대글로벌이 담당하는 실증 운영 모니터링을 거쳐 주행데이터와 개선점 등이 현대모비스의왕 연구소에 실시간으로 전달된다.

이를 통해 현대모비스는 양산형 수소모빌리티의 상품성을 강화하고, 연료전지 파워팩의 다양한 활용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정부의 '수소지게차 상용화를 위한 실증 기반 신뢰성 검증 기술 개발' 시범사업에도 참여해 대규모 수소지게차 플릿 운영을 추진한다.

현대모비스는 최근 국내 최초로 이동형 연료전지 분야에서 국가인증통합(KC)을 취득했다. 연료전지 분야의 KC 취득은 안전 기준과 시험평가 과정 모두 상당히 까다로운 것으로 유명하다.

현대모비스는 수소산업의 안전분야를 관리 감독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인증을 받았다.

올해 초 시행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에 따르면 수소제조설비와 수소용품 사업자들은 의무적으로 국가인증통합을 취득해야 한다. 정부나 지자체 역시 인증을 취득한 사업자에게만 수소 관련 실증사업에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국내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이 분야에서 인증을 취득함에 따라 앞으로 정부나 민간 주도의 각종 수소모빌리티 시범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금융범 현대모비스 연료전지사업실장(상무)은 "연료전지는 현대모비스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의 한 축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현대모비스가 입증한 연료전지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소산업 생태계를 확대 구축하는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안전 넘어 안심” 현대제철, 건설용 강재 선도

H CORE 프리미엄 브랜드 통해 가장 안심되는 최고급 강재 도약

국내 건설용 철강재 1위 기업인 현대제철이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건설용 강재 분야에서 프리미엄 브랜드로 도약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안전 넘어 안심'이란 슬로건 아래 건설분야 구조용 강재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현대제철은 내진용 건축 브랜드 'H CORE' 브랜드를 통해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고객이 안심할 수 있는 제품 개발에 나서고 있다. 안전을 최우선시한 현대제철의 역사는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현대제철은 지진에 의한 건축물 붕괴로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순한 제품 생산을 넘어 2017년 내진용 건축 브랜드 'H CORE(에이치 코어)'를 국내 최초로 론칭했다.

당시 H CORE는 지진의 충격을 흡수해 지각의 흔들림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성능 개발에 주력했다. 일반 강재 대

비 에너지 흡수력과 충격인성, 용접성 등이 우수한 것이 특징으로, 외부 충격으로부터 거주 안전성을 대폭 높였다는 업계 평가를 받았다.

현대제철은 이후 고온 등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건축물의 안전성을 높이는 내화내진 복합강재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고, 자재량 절감을 가능케 하는 고강도 H형강 KS 제 공 규격 82종 외 94종의 다양한 규격 제품인 'RH+'를 론칭했고, 국내 철강업계 최초로 H형강 GR(우수 재활용 제품) 인증을 신규 획득하는 친환경 행보도 이어왔다.

현대제철은 지난 9월에는 H CORE를 프리미엄 건설용 강재 브랜드로 재론칭했다. 철근·형강 등 내진 설계용 건설 강재에 국한됐던 브랜드를 후판·강관·열연 강관·냉연 강관까지 사용 범위를 넓혔다. 제품의 성능과 품질 관리를 넘어 설계부터 제작, 시공 단계 등 제작 전 과정에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브랜드 전면에는 '안전을 심은 철, 안심 H CORE'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유관 산업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과 함께 호흡하겠다는 취지와 함께, 새로운 H CORE가 안전을 바탕으로 가장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최고급 강재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한다.

새로운 H CORE의 주요 성능으로는 고강도와 내충격성, 내식성, 친환경성, 다양성 등을 꼽을 수 있다.

고강도 제품은 범용 강재 대비 약 20~30% 강도가 높아 합리적인 강재량으로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고연성 제품은 복합적인 외력에 유연하게 반응해 안전사고를 최소화 하는 대처가 가능하게 특징이다. 내충격 제품은 극지방에서 강점을 발휘한다. 기온이 낮은 곳에서 충격을 받더라도 깨지지 않고 에너지를 흡수하는 성능을 갖췄다. 내식성 제품은 오랜 비바람에도 부식되지 않고 최초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강점을 지녔다.

/양성운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맨홀 사고위험 요인 원격 모니터링 강화

SKT, 안전관리 솔루션 최적화 가스 의심지역 등 100개소 확대

SK텔레콤이 현장 작업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맨홀 사고 위험요인을 스마트폰 앱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자사 인프라에 적용한다.

SK텔레콤은 맨홀 아래 유해가스 농도나 온·습도, 침수·뚜껑 열림 여부 등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위험요인을 ICT 기술로 원격 모니터링하는 맨홀 안전관리 솔루션을 본격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맨홀은 작업자가 굴착 작업 없이 지하에 매설된 관로나 하수도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유용한 시설이지만, 오래 밀폐된 맨홀의 경우, 내부 유해가스 농도가 높아 작업자의 질식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맨홀 아래에 침수나 화재 사고가 발생하거나, 맨홀 아래로 사람이 추락하는 등의 안전사고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평상시 안전 관리가 중요하다.

SKT는 지난 4월 시범사업을 통해 통신 맨홀 규격과 설치 환경에 맞게 솔루션을 최적화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SK텔레콤과 SK오앤에스 작업자들이 IoT 센서로 측정된 맨홀 내부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하고 작업을 진행하는 모습. /SKT

가스 발생이 의심되는 지역, 깊이가 깊고 평상시 작업량이 많은 맨홀, 구(舊) 도심지 맨홀, 주요 통신시설 인근의 맨홀 등 100개소로 확대 적용했다.

맨홀 안전관리 솔루션에는 SK텔레콤의 AI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 '탱고(TANGO)'와 IoT 네트워크, SK윌더스의 지능형 융합보안 플랫폼 '씨미츠(SUMITS)', 사물인터넷(IoT) 전문 기업 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의 센서 기술이 적용됐다.

/채윤정 기자 echo@

KT, 통신비 혜택 '마이데이터' 서비스

적립 캐시 통신비 최대 2만원 차감 제휴사·캐시 이용처 지속 확대 추진

KT가 업계 최초로 통신비 혜택을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출시한다.

KT는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 역량을 기반으로 기존과 차별화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내놓고 향후에는 통신 혜택, 금융 유틸리티 등 새로운 생활 편의 서비스로 확대할 예정이다.

KT는 본인인증 서비스인 'PASS(패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KT 모바일 고객은 PASS 앱 업데이트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KT는 지난 10월12일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본허가를 획득했으며, 기본적인 금융자산 통합 조회 서비스에 더해 통신비 혜택까지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고객 만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KT 마이데이터 통신비 혜택은 KT 마이데이터와 제휴한 국내외 쇼핑 앱에서 결제하거나 제휴 서비스 구독 시 결제한 금액의 4%나 일정액을 캐시로 직

립하고, 적립된 캐시는 통신비에서 최대 2만원까지 차감하거나 KT 지니TV(Genie TV) 쿠폰 구매에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국내외 대형브랜드가 함께 참여하며, 제휴사와 캐시 이용처는 계속 확대한다.

또 농치기 쉬운 통신약정 만료일, 금융일정 등을 미리 고객에게 알려주는 '생활비서' 서비스, 신용정보를 손쉽게 보여주는 '자산관리' 서비스, 통신데이터를 활용한 '신용점수 부스터' 서비스도 함께 선보인다. 서비스 출시 이후 이용자의 의견을 빠르게 반영하고 개선하기 위해 첫 출시는 오픈 베타 형태로 이뤄질 예정이다.

/채윤정 기자

LGU+, 숙박할인·공연초청 프로모션

LG유플러스가 연말을 맞아 여행이나 공연 관람을 준비하는 고객을 위해 국내 숙박 할인 및 공연 초청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다음 달 1일부터 진행되는 프로모션은 고객별 맞춤형 혜택을 추천·제공하는 'U+멤버스 앱'을 고객들에게 알리고, 다양한 혜택 및 기능을 더해 '혜택 허브 플랫폼'으로 확대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이다.

우선, LG유플러스는 여가 플랫폼 기업인 '야놀자'와 협업, 국내 숙소 할인 혜택을 확대 제공기로 했다. 기존에는 멤버십 VIP 이상 등급 고객 중 '여행족'을 선택한 고객에게만 야놀자 국내 숙소 예약 6% 할인 혜택이 제공됐지만, 올 연말까지 진행되는 프로모션 기간 동안 LG유플러스의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누구나 야놀자에서 국내 숙소 예약 시 5% 할인을 이용 횟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

/채윤정 기자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CYBE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다시 해외로. 다시 외국어.

사이버한국외대 **신·편입생 모집**

모집일정 1차 22. 12. 1(목) ~ 23. 1. 11(수)
2차 23. 1. 30(월) ~ 23. 2. 15(수)

모집학부·학과

영어학부
중국어학부
일본어학부
한국어학부
스페인어학부
베트남·인도네시아학부
마케팅·경영학과
산업안전학과
다문화·심리상담학과

입학상담

02-2173-2580

TALK ID. cufs

입학지원센터



“우리도 돈 내고 이용할 만큼 삶의 질 높이는 플랫폼” “MBTI ‘I’가 ‘E’로 바뀔만큼 사내문화 즐거워요”

MZ터뷰

청소연구소 송유나 마케팅 팀장, 어나은 디자이너

MZ터뷰 일곱번째 주인공들은 홈클리닝 서비스 플랫폼 ‘청소연구소’의 두명의 실무진들입니다.

‘청소연구소’는 전문 홈클리닝 전문가를 연결하는 모바일 앱 서비스입니다. 기존 가사도우미 중개업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홈클리닝 전문가를 이용자들의 니즈에 맞게 매칭해준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앱으로 간편하게 검증된 청소 전문가들이 집을 방문해 청소부터 빨래까지 가사 전반을 책임집니다. 맞벌이부부, 워킹맘, 1인가구 증가로 빨래, 청소 등 가사 전반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플랫폼이 청소연구소입니다.

이 과정에서 청소연구소는 기존 홈클리닝보다 한 단계 더 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소연구소는 업계 최초로 홈클리닝 서비스 전문가를 교육하는 ‘단계별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총 6단계로 구성된 매니저 교육과정을 통해 서비스 평준화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교육과정은 구체적으로 가스레인지 닦는 법, 거울 닦는 법 등과 같은 기본적인 실무교육까지 포함, 서비스의 균질성을 보장했습니다. 앞서 교육과정 외에도 가사 매니저들의 신원확인, 건강, 인성 등의 기본 절차뿐만 아니라 인사법, 말투, 교정까지 홈클리닝 전문가들의 최고의 서비스를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교육을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8년된 서비스답게 수많은 고객들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달 등록된 청소 매니저 수는 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서비스 이용 고객은 매월 평균 10%씩 증가 추세입니다. 지난달에는 서울 지역을 시작으로 사무실 청소까지 서비스를 넓히며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용자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근에는 청소제품들까지 선보였습니다. 건조기 시트부터 만능행주티슈까지 다양한 제품군을 구축해 좋은 가격으로 온라인에서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청소라는 다소 무거운 수 있는 분야가 최근 1인 가구 증가, 핵가족화에 따라 청소에도 트렌드가 생기고 있습니다. 청소 관련 플랫폼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대부분이 2030세대일 뿐만 아니라 청소연구소에서 교육받는 전문가들의 40%는 2030대라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이처럼 앞으로 플랫폼들은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습득하고 접목해야 합니다.

청소연구소 MZ 실무진들이 그 최전선에 있죠. 송유나 청소연구소 마케팅 팀장(이하 제니), 어나은 청소연구소 프로젝트 디자이너(이하 라니)입니다.

그들은 빠르게 변하는 시대와 상황, 그리고 세대에 맞게 당차면서도 섣부르지 않았습니다. 양면 상황을 봐가면서 대처하는 눈치도 있었고 그 와중에도 할말은 다



(왼쪽)라니 디자이너, 제니 마케팅 팀장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최빛나 기자

송유나 마케팅 팀장
1인가구 늘면서 앱 이용 급증
철저한 검증과정 거쳐 매니저 선발
사랑·공유·유머 ‘406’ 문화 재미
자발적으로 참여할 만큼 즐거워

어나은 디자이너

제니 평수 기반 가격으로 부담 적어
클리닝 매니저 양성·복지에 진심
호텔뷔페가기 등 사내 이벤트
존재감 드러낼 수 있어 적극 참여

라니

하는 본 기자가 원하는 MZ실무자 상의 표본이었습니다. 그들과의 대화는 넘치는 에너지와 텐션에 지치는지 모르고 이어갈 정도였으니까요. 마케팅과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그들은 다른 업무를 하지만 우애깊은 직장 동료였다가 사내문화 중 하나인 토너먼트 대결시 경쟁사가 되곤 했습니다

아래는 그들과의 즉문즉답입니다.
-청소에 대한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체감 하나.

제니 1인 가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가사도우미 앱을 이용하려고 하는 직장인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 가사도우미라는 방식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청소연구소는 청소매니저를 부를수 있는 시스템으로 젊은 고객층 뿐만 아니라 중년층까지 다양한 가사에서 청소연구소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라니 꼭 정기서비스를 하지 않아도 상황과 목적에 맞게 앱을 이용하면 됩니다.

-앱을 이용하고 있다. 특히 그럼 어떤 서비스가 마음에 드나.

제니 저에게는 없어서는 안될정도가 됐습니다. 맞벌이를 하는데 분리수거가 가장 골치였습니다. 그 부분을 해결해 준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남편이 이제는 한 달에 여러번 부르자고 하더라고요. 입사하고부터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회사서 복지로 주는 플랫폼 쿠폰

보다 더 지불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니 삶의 질을 높여주는 플랫폼입니다. 특히 화장실은 제가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고 한들 매니저님들을 따라 갈 수 없습니다. 퇴근 후 화장실을 보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초기에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청소연구소는 평수를 통해 가격을 측정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아서요. 또 원하는 곳만 해주시니까 간편하게 앱을 통한 결제로 이용가능해서 더 좋습니다.

-매니저들을 교육해 전문가로 양성하는 시스템이라던데.

제니 가사도우미 앱 청소연구소는 총 6단계의 검증과정을 거친 매니저님들이 클리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장 인터뷰를 통해 신원확인 서비스인으로서 기본 소양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때문에 혹시라도 혼자 있을시에 매니저님이 방문해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도 서비스 초기에는 방문하실때 집에 있었는데 지금은 신경이 쓰이지도 않습니다.

라니 이런 매니저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 회사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을 진행하고 있어요.선물부터 건강관리를 위한 캠페인까지 매니저들의 안녕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니저들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의 피드백도

좋은 이유겠죠?

-청소연구소만의 문화가 있다.

제니 ‘406’ 사랑 공유 유머라는 각각의 뜻을 담은 팀이 있습니다.(대표님이 직접 지어내셨어요)

유머의 경우는 이벤트를 자주 합니다. 타 이평을 가장 빠르게 하는 팀을 선별하는 토너먼트대회, 반차의 추억 등이 있습니다.

라니 맛집가기, 호텔뷔페가기, 그릇만들기 등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색다르다. 가장 열심히 참여한 이벤트는.

제니 거의다... 최선을 다해 참여하는 편이에요. 너무 즐겁지 않아요? 입사 6년 차입니다. 그간 각종 모든 이벤트에는 다 참여한 것 같습니다. 즐겁거든요.

라니 알까기대회, 숭바꼭질, 워크샵 최근에는 타이핑 대회에서 우승까지 올라갔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다가도 이런 이벤트에는 진심입니다. 이.기.고.싶.습.니다.

제니 정말 이런 문화에 청년 직원 대부분이 다 진심인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정적인사람들이었나 싶더라고요? 동료들이 말하기를 MBTI가 I로 들어와서 E로 나간다고 할정도니까요.

라니 이같은 문화는 내 존재감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것 같습니다.

제니 또 강요가 아니고 자발적이라고 하면 믿으실건가요? 연말이 기대됩니다.

제니 사랑 공유 유머! 406! 회사 생활을 하다보면 내 업무에만 몰두해 다른 팀원, 다른 팀간의 커뮤니케이션도 줄어들기도 했는데, 406으로 인해 재미있고 동료들을 사랑하며, 모든 구성원들이 같은 정보를 갖고 한가지 목표에 몰입할 수 있다는 것이 좋아요. 나중에 회사를 퇴사하고, 이직하더라도 동료들과 좋은 친구로 남아있을 것이라 확신이 있고, 이 문화들이 업무의 효율성에도 좋다고 생각해요.

-회사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한다고 생각하는가?

라니 실패의 사이즈에 상관없이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마인드를 가지시길! 실패한 것을 그 결과로 바라보지 않고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는 지점으로 생각하여 성공적인 결과로 이끌며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것이 회사를 더 성장시킬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실패하지 않기 위해 많은 시간을 소요하며 논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소수의 의사결정권자를 믿고 않고 과감하게 도전하며 실패하더라도 같이 해결해나갔으면 좋겠어요. 더 큰 조직으로 가기위한 과정이지 않을까 싶어요.

-마지막으로 하고싶은말?

라니 타자왕 우승은 우리끼리!! (연말회식 뉘끼바가서 배터지게 먹고싶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주세요 하고싶어요) 어우디! (어차피 우승은 디자인팀), 사실 뉘끼바가서 회식하면 우승은 안해도돼요.

제니 저 MZ맞나요?

조희연 “9년간 직업계고 반도체 인력 4050명 키울 것”

(서울특별시교육감)

서울시교육청

10년간 전문가 12.7만명 더 필요
학점연계제 활용 직업계고 특성화

3년간 연 2곳 거점학교 지정하고
학과 개편, 학교 밖 수업도 진행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향후 2031년까지 총 4050명의 반도체 고졸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10년 간 반도체 분야에 약 12.7만명의 추가 전문인력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재는 강사진도 부족한 상황이다.

30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고교 단계의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교육 당국의 반도체 인재양성 주면에 호응했다. 특히 학점연계제 등을 활용한 직업계고의 특성화를 확대할 계획이다.

조 교육감은 “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을 이끌어갈 미래의 인재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반도체 산업 규모 확대에 따른 반도체 산업현장의 인력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3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서울시교육청 브리핑 룸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 직업계고에서 반도체 전문인력 4050명을 양성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10년 간 반도체 전문인력 추가 수요는 약 12만7000여명에 달한다. 반도체산업협회는 반도체 산업 규모 확대 전망에 따라 현재 약 17만7000명인 산업인력이 10년 후 약 30만4000명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정부의 반도체 인력 양성 방안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고자 고교 단계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우선 연차별(2023년~2025년)로 2개 학교씩 거점학교를 지정할 계획이다. 거점학교에는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반도체 산업 현장에서 요구

하는 직무역량을 기르기 위한 학과 개편을 지원한다. 특히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서울 직업계고 학점연계제를 통해 반도체 관련 다양한 과목의 이수기회 확대에 방점을 뒀다.

기본적으로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육과정과 연계해 학과 내에 세부전공 코스를 운영한다. NCS 체계에 의한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분야는 반도체 개발 분야, 제조 분야, 장비 분야, 재료 분야 등이 있다.

신상열 서울시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장은 “반도체를 만들 때 학사 이상 인재만 필요한 것이 아니며 고교 단계에서는 설계 보조까지도 가능하다”며 “NCS 레벨 3,4에 초점을 두고 학습모듈을 구성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교내에서 이뤄지기 어려운 수업은 학교 밖 수업으로 진행된다. 예를 들면 대학, 산업체 등 반도체 관련 전문인력과 설비를 갖춘 기관에서 교과를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반도체 실무 경험을 체계적으로 확장해 산업현장 맞춤형 교

육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다만 조 교육감은 “SK하이닉스 같은 산업체들과 직접 이야기가 된 사안은 아니다”면서 산업체들이 후속 논의에 대한 관심은 보였지만 구체적으로 진전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난항이 예상되는 부분은 강사진 수요다. 반도체 분야는 인재는 물론 교육자의 공급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교육감 역시 “(강사진 구축이) 가장 난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현장 중사자를 전문교과 시간강사로 채용하는 등의 방안을 생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미스매칭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교육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AI융합 진로직업교육원도 설립된다. 학생과 교원, 학부모의 진로·직업 교육을 총괄함과 동시에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병행한다. 교육원에는 반도체 분야 전·현직 현장전문가로 구성된 (가칭)반도체 교육지원단을 구성하는 등 신기술 교육 지원에도 힘을 예정이다.

/신하는 기자 godhe@metroseoul.co.kr

“초·중등 예산 덜어 대학지원, 강력한 유감”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

“세입예산안 인수법안 철회하고
국민을 위한 예산과 세법 만들어야”

초·중등 예산을 덜어 대학·평생교육으로 넘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 개정법률안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법안 등 25개 법안이 세입예산안 인수 법안으로 지정되자 교육계에서는 ‘철회’ 요구가 나오고 있다.

교육계와 교육당국이 교부금 개편을 두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30일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을 예산부수법률안으로 지정

했다. 이에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현재의 예산부수법률안은 철회하기 바란다”며 유감을 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이날까지 예산부수법안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할 시 내달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이에 조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서 이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지금이라도 유초중등교육의 미래 지향적 발전을 위해 여야, 기재부 등이 머리를 맞대 진정한 ‘국민을 위한 예산과 세법’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등교육특별회계법안은 초·중등 교

육재정에 포함되는 교육세 3조를 대학·평생교육에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시·도교육감을 비롯한 초·중등교육계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라고 비판하며 강력하게 반발해 왔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전에도 교육부, 기재부 등과 협의회를 열었지만 합의에 실패한 모습이다.

더불어 “시도교육감협의회는 향후 3년간의 미래교육재정 수요를 이미 밝히며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의 중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면서 “앞으로도 시도교육감들은 이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하는 기자

학교 교육과정 연계 ‘자전거 타기’ 추진

서울시교육청, 교육 확대방안 발표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생활 속 체육으로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추진한다.

30일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학생들이 올바르게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는 문화를 조성해 생태 전환을 실천하는 생태민주시민을 육성하겠다”며 자전거 교육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전거 타기 교육에 2025년까지 총 15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교육용 자전거 확보와 유지·관리 등의 문제로 학교에서의 자전거 타기와 안전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자전거 타기 교육을 학교에서 공인하겠다는 뜻의 ‘자·타·공·인’ 종합 추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생애주기별 지수개발·보급을 통해 학교급별 자전거타기 성취수준(지수)을 제시하는 등 ‘생활 속 자전거 타기’ 실천 문화를 조성할 계획

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2025년까지 강사의 지도 아래 자전거와 안전 장비가 모두 제공되는 ‘찾아가는 자전거 타기 안전교실’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이는 서울 전체 초등 4학년 학생들에게 실시되며, 수강 학생의 80% 이상이 인증제를 통과하는 것에 목표를 뒀다.

중학교는 교육과정 내 자전거스포츠클럽 운영을 지원하며, 고등학교는 자전거 동아리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생활 속 자전거 타기 활성화 시범학교 운영 ▲실내사이클 활동지원 ▲자전거 역량 지수 개발 및 인증제 등의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다.

조 교육감은 “생활 속 자전거 타기가 정착되기 위해 자전거 도로 보충이 추가되는 등 생태 도시로 변화하는 소망이 있다”며 “앞으로 자전거 교육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전했다.

/신하는 기자

“서울교육 응원·격려 메시지 보내주세요”

서울시교육청, 메시지 공모전

서울특별시교육청은 12월 1일부터 16일까지 2023년 새로운 도약을 위해 서울교육의 비전과 가치를 주제로 한 ‘서울교육메시지 선정 공모전’을 실시한다.

‘서울교육메시지’는 교육청 외벽에 위치한 대형 글판이다. 서울교육의 지향점을 알리고, 보는 이에게 격려와 응원을 보내기 위해 설치했다.

2023년부터는 공모전을 통해 메시지를 선정할 예정이며, 누구나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자유롭게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은 서울교육의 비전과 가치를 주제로 타인에게 격려와 응원을 줄 수 있는 한글 20글자 이내 문구로 작성해 1인당 2개작까지 응모할 수 있다. 출품작은 심사를 거쳐 총 3개작을 선정하며, 당선작(1작)은 30만원, 가작(2작)은 1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 지급된다. /신하는 기자

고객만족도(NCSI) 1위 기업



경북대가 2022년 국가고객만족도(NCSI)조사에서 국립대 부문 1위를 차지했다. 사진은 흥원화 경북대 총장(오른쪽)과 안원기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뉴스시스

경북대, 국가고객만족도 국립대 부문 1위

경북대학교는 한국생산성본부의 2022년 국가고객만족도(NCSI)조사에서 국립대 부문 1위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서울대를 포함한 전국 10개 거점국립대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국립대 국가고객만족도 조사에서 경북대는 지난해보다 6점 상승한 79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는 국가고객만족도 조사가 시행된 이래 처음으로 1위에 오른 것이다.

경북대는 지난해 국립대 최초로 재학생을 선발 대상으로 하는 융합학부를

신선했다. 융합학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첨단 분야 전공으로 구성돼 있다. 재학생들이 전과를 통해 지원할 수 있어 기존 학사제도의 틀을 벗어난 혁신적인 학사제도 개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함께 학습·연구는 물론 문화·휴식공간까지 갖춘 최첨단 도서관, 입학부터 졸업까지 원스톱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학생종합지원센터 등 학생 중심 교육 인프라 구축에 노력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신하는 기자

서울사이버대 대학원, 신입생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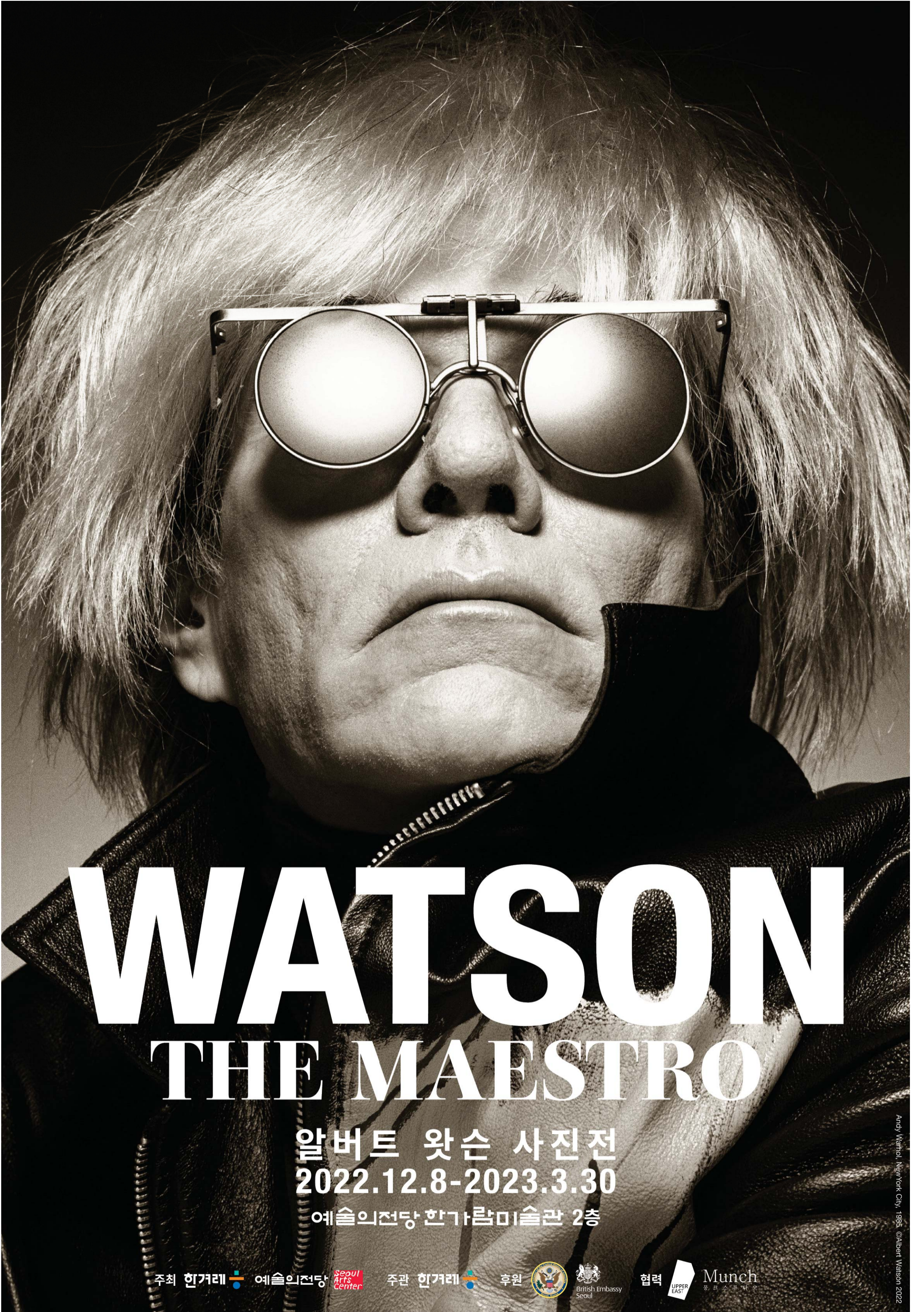
대학원 홈페이지서 입학 접수

서울사이버대학교 대학원이 오는 12월 1일까지 2023학년도 전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휴먼서비스대학원 사회복지전공 석사과정과 상담심리대학원 상담및임상심리전공을 모집하며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입학 접수는 서울사이버대 대학원 홈페이지

에서 가능하다.

서울사이버대학교 휴먼서비스대학원 사회복지전공 석사과정은 사이버대학 최초로 개설된 온라인 사회복지대학원이다. 지속가능사회 구현에 기여하는 실천능력을 갖춘 사회복지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현대사회의 복지요구에 부응하는 전문가 양성을 위해 5대 교육분야에 대해 특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신하는 기자



WATSON THE MAESTRO

알버트 왓슨 사진전
2022.12.8-2023.3.30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2층

주최 **한겨레**

예술의전당 **Seoul Arts Center**

주관 **한겨레**

후원



협력



Munch
프리소프타운

“일상을 특별하게 만드세요”... 유통업계, ‘캠핑 감성’ 무장

에이피알 ‘널디’ 윈터 쇼케이스 공개
에이블리 아웃도어관 신규 론칭
신세계백 스포츠·아웃도어관 오픈

캠핑시장의 가파른 성장세에 ‘캠핑 감성’이 가세했다. 캠핑시장은 팬데믹 기간 중 인파가 적은 곳을 찾는 이들이 늘며 부쩍 성장했다. 24일 롯데멤버스에 따르면 캠핑 경험자 600명에게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43.5%가 코로나19 이후 캠핑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캠핑이 대중적인 취미로 자리잡으며 시장이 급성장했고, 다양한 캠핑 상품이 일상에서까지 유행하면서 ‘캠핑 감성’이 하나의 트렌드로 떠올랐다. 지난 8월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캠핑 산업규모는 약 7조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20%(약 5조 8336억원) 성장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따르면 현재 전국 야영장(캠핑장) 또한 3205개로 지난해 대비 14.3% 늘었다.



29일 에이피알이 공개한 윈터 캠핑 쇼케이스 화보. 캠핑이 주는 특별한 감성을 패션 화보에 담았다. /에이피알

캠핑 시장의 성장세는 기저효과로 둔 화해도 성장은 계속 될 전망이다. 국내서 주로 소비되는 캠핑 상품의 대다수는 아직 ‘초보’ 수준 상품이고, 수입되는 캠핑 상품 중 특히 전문장비가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는 만큼 더 커질 거란 업계의 설명이다. 시장이 성장하면서 트렌드도 변하고 있다. 최근 캠핑 시장의 특징은 캠핑족

이 아닌 이들의 ‘캠핑 감성’ 상품 소비다. 캠핑 패션과 용품이 주는 특별한 감성을 즐기려는 이들로 캠핑 용품은 일반인들에게까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고프코어(Gorp Core)가 유행하면서 패션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고프코어란 야외활동 시 체력 보충을 위해 챙겨 먹는 견과류를 뜻하는 고프(Gorp)와 자연스럽게 멋을 추구하는 놈코어

(Normcore)의 합성어로 일상복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아웃도어 패션 스타일을 의미한다. 30일 에이피알은 겨울 시즌 아우터를 이용한 ‘널디’의 윈터 캠핑 쇼케이스를 공개했다. 널디는 ‘겨울 캠핑’을 테마로, 눈이 내려앉은 자연과 함께 여가를 즐기는 커플의 모습을 쇼케이스에 담았다. 아우터 상품들을 세련되게 코디해 캠핑장을 배경으로 보여줘 기능성과 스트릿감성을 모두 살렸다. 정혜정 에이피알 팀장은 “예년보다 따뜻한 겨울 날씨로 야외 활동이 각광받는 트렌드를 감안한 캠핑 콘셉트의 쇼케이스를 기획했다”며 “스트릿 감성을 담은 널디의 겨울 아우터로 여기는 물론 힙한 데일리 코디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에이블리도 지난 15일 브랜드 관내 아웃도어관을 신규 론칭했다. 트렌드에 민감한 유저 특성을 반영해 야외활동 중에도 개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스타일과 기능성을 모두 갖춘 브랜드 및 상

품으로 업선했다. 대표적인 캠핑·아웃도어 아이템인 의류, 신발뿐 아니라 비니, 볼캡, 가방 등 디테일을 살릴 수 있는 액세서리 라인까지 다채롭게 준비했다. 에이블리아웃도어관은 테스트 기간인 지난달 거래액이 전년 동기 대비 약 85% 증가했으며, 초겨울 추위가 다가오는 10월 후반부로 갈수록 인기가 높아졌다.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들이 연이어 입점하며 관련 상품 수도 335%가량 대폭 늘었다. 백화점 업계도 캠핑 시장의 성장세를 눈여겨 보고 전문관을 열었다. 신세계 백화점은 지난달 27일 센텀시티점에 업계 최초로 1600평 규모 스포츠·아웃도어 전문관을 열었다. ‘피엘라벤’, 경량 텐트, 백패킹 전문 브랜드 제로그램 상품 등으로 마치 캠핑장에 온 듯한 느낌을 주는 연출로 캠핑족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아크테릭스, 파타고니아, 살로몬 등 주요 고프코어 트렌드 대표 패션 브랜드들도 대거 입점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CJ제일제당, 친환경 생분해 소재 산업 키운다

생분해 소재 관련 산학연 협의회 참여
R&D·제도 개선·정책 제언 등 주력

CJ제일제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손잡고 PHA를 비롯한 친환경 생분해 소재 산업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CJ제일제당은 국내외 기업들이 참여하는 생분해 소재 관련 산학연 협의회인 ‘강소연구개발특구 바이오 플라스틱 미래테크 포럼(과기부·특구재단 주관)’에 참여한다. 29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포럼 출범식에는 CJ제일제당 외에도 SKC, HDC현대EP, BGF에코바이오 등 국내기업뿐 아니라 네이처웍스, 토탈코비온 등 해외 바이오 소재 기업도 참여했다. 참여기업들은 ▲과기부 산하 기술핵심기반 및 실증특례제도를 활용한 생분해 소재 기술 검증 ▲국내외 기업간 협업 기반 생분해 소재의 전주기(생산·사



29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강소연구개발특구 바이오플라스틱 미래테크 포럼 출범식에 CJ제일제당 외에도 SKC, HDC현대EP, BGF에코바이오 등 국내기업뿐 아니라 네이처웍스(NatureWorks), 토탈코비온(TotalEnergies-Corbion) 등 해외 바이오 소재 기업도 참여했다. /CJ제일제당

용·처리) 공동지원체계 구축 ▲중소기업에 대한 R&D 및 실증 사업 지원 등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번 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기업들이 규제 특례 구역 안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설에 생분해 소재를 투입, 실제 퇴비화 여부를 확인하고 별도의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플라스틱 분리배출 및 재활용 체계상 생분해 소

재의 퇴비화 검증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더불어 생분해 소재 분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에너지화하는 실험도 가능해졌다. 협의회는 다양한 연구개발과 검증 등을 통해 확보한 데이터를 토대로 생분해 소재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 및 정책 제언에도 나서기로 했다. /김서현 기자

올리브영 “올해 히트상품 최대 70% 할인”

7일까지 올영세일... 어워즈 상품 특가

올리브영이 12월 1일부터 7일까지 ‘2022 올리브영 어워즈’ 수상 상품을 중심으로 올해의 히트 상품을 최대 70% 할인하는 ‘올영세일’을 연다. ‘올리브영 어워즈’는 약 1억 건의 고객 구매 데이터에 기반해 매년 부문별로 가장 많은 인기를 끌었던 상품을 선정해 발표하는 행사다. 이번 올영세일은 ‘오늘의 특가’, ‘선착순 특가’ 등 ‘올영세일’만의 시그니처 이벤트를 통해 어워즈 수상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오늘의 특가에서는 프리미엄 브랜드 상품을 중심으로 구성해 혜택을 극대화했다. 올해 어워즈 프리미엄 부문 수상 상품인 어반디케이 픽서, MAC 새도, 에스티로더 갈색병 등 주요 인기 상품 3~4종을 저렴하게 판매한다. 선착순 특가는 세일 첫날인 1일을 포함해 세일 기간 중 총 세 차례 연다. 1만 원 이상 구매 시 행사 상품을 100원, 990원 또는 19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전국 매장에서는 개점 이후 소진 시 까지, 온라인몰 및 모바일 앱에서는 오전 10시와 오후 6시에 각각 만날 수 있다. /김서현 기자



오리온
‘2022 어드벤처 캘린더’ 출시

오리온은 ‘2022 오리온 어드벤처 캘린더(사진)’를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어드벤처 캘린더’는 12월 1일부터 25일까지 날짜에 맞는 칸에 작은 선물을 담아놓고, 하루에 하나씩 선물을 확인해보며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이색 달력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

위메프 4일까지 위메프데이... 연말 상품 판매

시즌의류·홈파티용품 등 특가

위메프는 12월 4일까지 ‘위메프데이’를 열고 연말 시즌 다양한 쇼핑 상품을 모아 판매한다. 위메프데이는 매달 1일 진행되는 월간 특가 프로모션이다. 판매 데이터를 바탕으로 테마 코너를 운영해 인기 상품을 할인 판매한다. 12월 기획전에서는 본격적인 한파철을 대비할 시즌 의류와 연말연시 홈파티에 유용한 베이커리 브랜드 금액권 등을 특가에 준비했다. 메인 행사인 ‘슈퍼위

메프데이’에서는 MD가 큐레이션한 12월 추천 상품을 판매한다. ▲스파오 리버시블웬업 자켓 ▲폴햄 리버시블 폴리스 패딩 점퍼 ▲비비고 사골곰탕 500g ▲뚜레쥬르 1만원권 등 행사 기간 24개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인다. 행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장바구니 쿠폰과 제휴 카드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김서현 기자



GS리테일 로봇치킨 운영점포 위생·매출 ‘好好’

30일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시행 중인 GS리테일은 로봇치킨 운영 점포가 음식점 위생등급제 ‘매우우수’로 지정 받았다고 밝혔다. 로봇 치킨을 운영하고 있는 편의점 GS25 동래래미안아이파크점은 지난 8월, 슈퍼마켓 GS더프레시검단신도시점은 11월에 ‘음식점 위생등급제’에서 ‘매우우수’를 지정 받았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식품위생안전처 주관으로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하고 우수한 업소에 대해 등급을 지정

공개함으로써 점포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위생 사고 예방 및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인증제도다. GS리테일은 지난해 6월부터 위생등급제를 도입했다. 현재 11월 말 기준으로 343개 점포에서 지정을 받았다. 로봇치킨을 도입한 점포는 위생과 함께 매출 또한 높다. 현재 로봇치킨을 운영 중인 GS25 동래래미안아이파크점은 약 1200%, GS더프레시는 약 300% 이상 일반 점포 대비 치킨 매출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김서현 기자

현대홈쇼핑, 하노이서 75억 상담 실적 거뒀

현대홈쇼핑은 지난달 베트남 하노이에서 진행된 ‘2022 하노이 한류박람회’에 중소협력사 14곳과 참가해 총 550만 달러(약 75억원)의 상담 실적을 거뒀다.

현대홈쇼핑은 이번 박람회에 참여한 중소협력사에 박람회 참가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지원했다. 또 80㎡ 규모의 수출 상담 부스 및 체험관을 설치해 중소협력사의 대표 상품을 소개했다. /김서현 기자

셀트리온, ‘램시마SC’ 글로벌 특허 순항... 시장 지위 강화

연내 미국 FDA 허가신청 계획
美 진출 앞두고 매출 기반 마련
독점적 지위 확보, 경쟁력 강화

셀트리온이 램시마SC의 미국 진출을 앞두고 특허권을 빠르게 확보하며 매출 보호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램시마SC가 인플릭시맙의 세계 최초 피하주사(SC) 제형인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해 안정적인 시장 진입로를 다질 계획이다.

지난달 30일 셀트리온에 따르면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램시마SC는 이제까지 한국, 호주, 대만 등의 국가에 등록돼 특허권을 획득했다. 이외 여러 국가에서 특허권을 출원, 획득했지만 사업전략상 공개가 어렵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이들 국가에서는 판매 허가까지 획득해 안정된 시장 진입을 위한 여건을 확보한 상태다.

셀트리온은 현재 특허권 심사가 진행중인 미국 및 유럽 국가까지도 이어져 이들 국가에서도 순차적으로 특허가 등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



램시마SC.

/셀트리온

히, 미국은 FDA와의 허가 협의 단계에서 제형의 차별성을 인정받아 신약 허가 절차를 밟게 될 예정이어서 특허 등록을 통한 시장 내 제품 보호는 필수다. 램시마SC는 연내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램시마SC는 기존 정맥주사(IV) 제형이던 인플릭시맙을 세계 최초로 피하주사(SC) 제형으로 바꿔 편의성을 높인 의약품이다. 셀트리온은 이를 감안해 지난 2018년부터 선제적으

로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 주요 국가에 램시마SC의 제형과 투여법에 대해 특허를 출원해 왔다.

셀트리온이 출원한 특허는 램시마SC뿐 아니라 인플릭시맙 피하주사 바이오시밀러의 시장 진입을 방어할 수 있도록 구성된 장벽 특허로, 제품 보호를 위한 선제적 방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셀트리온은 특허가 등록될 경우, 특허 만료 시점까지 램시마SC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안정적 수의

창출을 위한 토대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각 국가별로 심사를 거쳐 특허가 등록되면 램시마SC의 제형은 2037년 6월, 투여법은 2038년 8월까지 특허권 보호를 받게 된다.

셀트리온은 제형의 편리성을 앞세운 램시마SC가 인플릭시맙을 비롯해 아달리무맙, 에타너셉트 등의 성분이 이끌고 있는 TNF- α 억제제 시장 전체로 경쟁력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램시마SC는 TNF- α 억제제 중에서 유일한 인플릭시맙 SC 제형으로, 기존 램시마IV의 빠른 투약 효과에 램시마SC의 제형 편리성이 더해지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세계 최초 인플릭시맙 피하주사 제형으로 개발된 램시마SC는 특허 등록을 통해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램시마SC가 주요 글로벌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 남은 특허 등록에도 최선을 다해 안정적 매출 보호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크리스마스엔 ‘9980원 갓성비’ 케이크”

신세계푸드가 지난달 30일 서울 이마트 용산점에서 9980원 ‘갓성비’ 크리스마스 케이크 출시를 알리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이대서울병원

고혈압 주간 맛이 ‘건강강좌’

이대서울병원은 다음 달 8일 오후 12시 이대서울병원 지하 2층 중강당에서 ‘제 20회 고혈압주간 대학병원 건강강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대서울병원 순환기내과 주치로 열리는 이번 건강강좌에서는 ▲고혈압의 진단과 치료(이상은 이대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교수) ▲고혈압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편육범 이대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교수) 등 강의가 진행된다.

매년 12월 첫째 주는 한국고혈압관리협회와 대한고혈압학회가 고혈압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한 ‘고혈압 주간’으로 이대서울병원은 이 시기에 맞춰 오프라인 강좌를 준비했다. 이번 강좌는 사전 신청없이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다.

이대서울병원 순환기내과 편육범 교수는 “최근 인구고령화로 고혈압 유병률이 높아지는 가운데 흡연, 비만 등 원인으로 젊은 고혈압 환자도 급증하는 추세이다”라며 “일반인들에게 고혈압의 위험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울리기 위해 이번 강좌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스타벅스 X-MAS 음료 ‘오로라 캐모마일 릴렉서’ SNS 등서 MZ에 인기

스타벅스코리아가 크리스마스 계절 음료로 선보인 ‘오로라 캐모마일 릴렉서(사진)’가 MZ세대의 취향을 사로잡았다.

지난달 30일 스타벅스에 따르면 오로라 캐모마일 릴렉서는 독특한 풍미와 비주얼 등이 주목을 받으며 20대와 30대를 중심으로 구매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지난 9일 출시 이후 오로라 캐모마일 릴렉서를 구매한 스타벅스 리워드 회원 중 20대 비율이 40%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30대가 32%, 40대가 23%를 차지했다.

오로라 캐모마일 릴렉서는 캐모마일 티와 레몬그라스, 리치, 로즈마리, 레드 커런트를 활용한 티 베리에이션 음료이다. 당도와 산도가 균형을 이루는 풍미가 특징으로 몸과 마음을 위로하며 힐링을 경험할 수 있는 음료로 기획됐다.

또 겨울 밤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오로라가 살포시 내려앉은 듯한 색감으로 매력을 더한 점이 특징이다. 소셜미디어에도 다양한 인증 사진이 게재되는 등 독특한 비주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세경 기자

식약처, 백신 규제시스템 글로벌서 인정

WHO 평가서 최고등급 획득
전세계 규제기관 중 최초 의미
‘WLA 등재’ 중요 관문 넘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세계보건기구(WHO)의 의약품·백신 규제시스템 글로벌 기준(GBT)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획득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WHO는 국가별 규제시스템에 대해 자체 개발한 평가 방법 GBT을 이용해 9가지 영역 총 268개 지표를 평가하며, 결과는 성숙도 1등급(최저)부터 4등급(최고)까지 나뉜다.

전 세계 의약품 등 규제기관 중 GBT 평가 결과 의약품 및 백신 분야 모두 4등급을 획득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싱가포르의 의약품 분야에서만 4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WHO 인정 우수 규제기관 목록(WLA)’ 등재를 위한 사전 평가다. 식약처는 현재 의약품·백신 분야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받기 위해 WLA 등재를 추진 중이다.

WHO 규제시스템 평가는 의약품, 백신, 혈액제제, 의료가기 4개 분야로 구성되며 WLA 등재는 의약품과 백신 분야만 적용 받는다.

WHO 사무차장보 마리앙겔라 시마오 박사는 “이번 성과는 의약품과 백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장하고 규제시스템을 잘 확립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노력해 온 것에 따른 훌륭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일동바이오사이언스,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취득

프로바이오틱스 원료 22종

일동제약그룹의 건강기능식품 사업 계열사인 일동바이오사이언스가 자사 프로바이오틱스 원료에 대해 인도네시아 할랄(HALAL) 인증을 취득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할랄이란, 아랍어로 ‘허용할 수 있는’, ‘허용된 것’이라는 뜻으로,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에 부합함을 의미한다. 식품의 경우 재료와 성분, 제조 및 가공방법 등을 따져볼 때 율법상으로 무슬림이 섭취해도 되는 것들을 가리킨다.

이번에 일동바이오사이언스가 취득한 할랄 인증은 인도네시아 식품·



일동바이오사이언스 본사 전경.

의약품·화장품 평가기관인 ‘리폼 무이(LPPOM MUI)’ 주관이다. 인도네시아의 리폼 무이는 세계 3대 할랄 인증 기관 중 하나다.

일동바이오사이언스는 리폼 무이로부터 락토바실러스 균속, 비피더스 균속 등 자사가 생산하는 유익균 및 프

로바이오틱스 원료 총 22종에 대한 할랄 인증을 취득했다. 특히, 각 원료의 성분 및 소재는 물론, 제조시설과 공정에 이르기까지 까다로운 평가 절차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일동바이오사이언스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는 2억 7600만 인구를 가진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으로, 국민의 약 80%가 무슬림이며, 전 세계 무슬림 중 가장 많은 수가 속한 세계 최대 규모의 할랄 시장”이라며 “할랄 인증뿐 아니라 유대인 율법 기준에 맞춘 코셔(Kosher) 인증도 앞서 2020년에 취득하는 등 프로바이오틱스 원료의 품질과 상품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세경 기자

GC녹십자

코감기약 ‘노즈그린연질캡슐’

GC녹십자가 코감기 증상 완화에 효과적인 신제품 ‘노즈그린연질캡슐(사진)’을 출시했다.

기존 ‘그린노즈에스캡슐’ 제품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노즈그린연질캡슐’은 코막힘, 콧물, 재채기, 눈물, 인후통, 머리 무거움 등의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일반의약품이다. 이 제품은 항콜린 작용으로 콧물과 기관지 분비물을 감소시키는 ‘벨라돈나총알칼로이드’와 함께 콧물, 코막힘 증상을 빠르게 완화해주는 ‘페닐에프린’, ‘클로르페니라민’을 함유해 코감기의 증상 개선에 효과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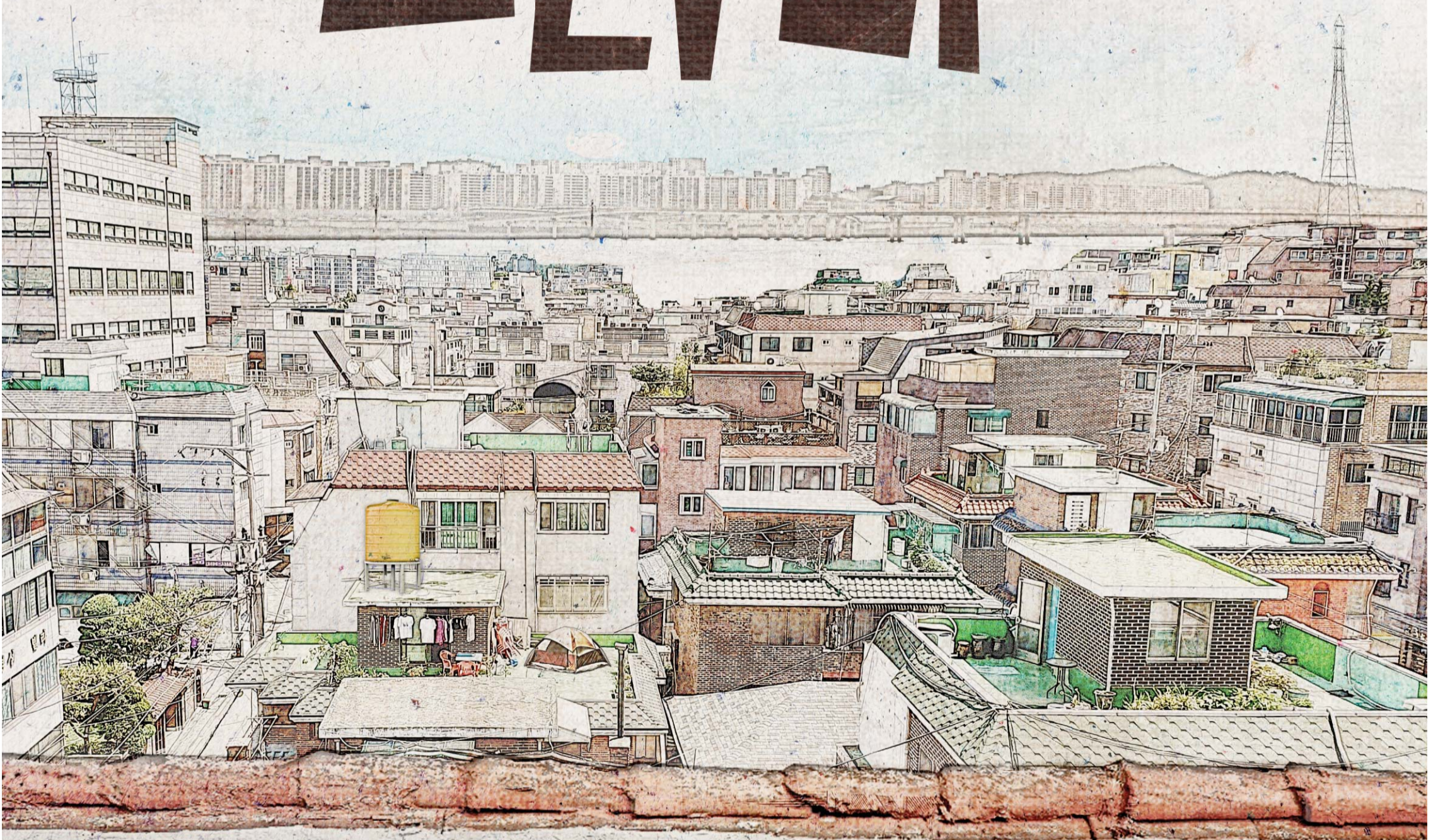
/이세경 기자



골때리는 그놈들이 돌아왔다!

MUSIC DRAMA

망원동 브라더스



2022년 12월 1일 (목) ~ OPEN RUN **홍대 제이엘씨어터**

원작 김호연 소설 <망원동 브라더스> | 각색·연출 홍헌우 | 음악감독 김은지 | 조연출 전예정 | 제작 극단지우
조명디자인 김병철 | 디자인 김리나 | 기획 이제이컴퍼니·(주)브라더후드 | 주최·주관 극단지우

출연 김준희 권오을 이호준 신정만 맹상열 김현 황원상 오치운 고훈목 김초록 김영규 신현규 양현석 한병수 박창희 장희재 이서경 서은교

후원 나무옆의자 출판사 (주)이엘엔터테인먼트 제이엘컴퍼니 이제이컴퍼니 예매처 인터파크 네이버 예약 모이다티켓



하나증권, 따뜻한 겨울나기 봉사활동 진행

하나증권이 지난 29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에서 에너지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지원을 위한 겨울나기 필수품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현대ENG, 투르크메니스탄 암모니아 요소비료 협력

현대엔지니어링이 투르크메니스탄 산업기업인연맹과 14억 달러 규모의 '투르크메니스탄 암모니아 요소비료 공장'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유한킴벌리, 노조·회사 상생자금 1500만원 출연

유한킴벌리가 노조, 회사 공동으로 사회공헌 활동 일환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상생실천자금 1500만원을 출연했다.



이대목동병원 전공의 4명 학술대회서 수상 잇따라

이대목동병원 영상의학과 전공의 4명이 지난 11월 4~5일간 서울그랜드워커히 호텔에서 열린 제10회 MRI 국제학술대회 및 제 27차 대한자기공명영상학회 학술대회에서 6개의 상을 수상했다.

인사

- ◆중소기업중앙회 ◇임원 임명 △스마트일자리본부장 이명로
◆태영그룹 ◇티와이홀딩스 승진 △전무 양윤석 황선호 △상무보 송용호 ◇태영건설 승진 △부사장 이승모 △전무 안치열 △상무 이현석 △상무보 김영수 △상무보 임기형 △상무보 정광섭 △상무보 조현민 ◇에코비트 승진 △전무 이혜리 정세형 △상무 김수미 △상무보 신준식 △상무보 윤상병 △상무보 주승환

부음

▲이정순씨 별세, 전석창(서울양천경찰서 공공안전정보외사과장·경정)씨 모친상=29일 청주시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발인 12월 1일 오전 7시, 043-279-0144

현대차그룹, 친환경車 랩핑 활용 '부산엑스포' 홍보

BIE 총회기간 에펠탑 등 명소 부산 알리며 유치 지원 활동펼쳐

현대자동차그룹이 파리 현지 네트워크를 이용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에 나섰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28~29일 파리에서 개최된 제 171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기간에 현대차그룹 친환경 차량 및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원했다고 30일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로고를 랩핑한 현대차 차량을 총회가 진행된 팔레데콩그레 및 루브르 박물관, 에펠탑 등 파리의 주요 관광 명소 주변에서 운행하며 부산을 알렸다.

현대차그룹은 특히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를 주제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모색하는 부산세계박람회의 비전을 고려해 유치 활동 과정에서 전용 전기차 아



현대차그룹이 11월 28~2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 171차 국제박람회기구 총회 기간에 '2030 부산세계박람회' 로고를 랩핑한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 코나 EV 등 현대차 친환경 차량을 이용해 파리 주요 지역을 순회하며 부산을 알리고 있다.

이오닉 5, 코나 EV 등 현대차 친환경 차량을 활용했다.

또 현대차·기아 파리 현지 판매 거점에서 부산의 경쟁력을 담은 영상을 상영하고 부산세계박람회 홍보 배너와 안내 책자도 비치하는 등 공감대 형성에도 주력했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지난 6월 파리

에서 개최된 제 170차 국제박람회기구 총회 기간에도 부산세계박람회 로고를 랩핑한 현대차 투싼 차량으로 유치 지원 활동을 펼치고, 유치 후보국 간 경쟁 프레젠테이션에 민간 기업으로는 이례적으로 현대자동차 연구개발본부 소속 연구원이 대표 연사로 참여하기도 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2030 세계 박람회 유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그룹은 득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세계 박람회 개최지로 부산만의 경쟁력과 부산세계박람회의 비전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8월 국내 대기업 가운데 가장 먼저 그룹 차원의 전담조직인 '부산엑스포유치지원TFT'를 구성한 현대차그룹은 공식 글로벌 SNS를 통해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및 국내외 범조성을 위한 지원 활동도 적극 나서고 있다.

현대로템, 2년 연속 ESG 종합평가 A등급 달성

물 취수량 증가 제로화 목표 재처리 통해 공업용수 확보

현대로템이 2년 연속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종합평가 A등급을 획득하며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인정받았다.

현대로템은 한국ESG기준원(KCGS)에서 발표한 '2022년 상장기업 ESG 평가 및 등급 공표 결과'에서 통합 A(우수)등급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KCGS의 ESG 등급은 2011년부터 국내 상장기업의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수준을 평가한 것으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장려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는 기업의 ESG 경영 수준을 알 수 있도록 돕는 지표다.



현대로템의 수소전기트램 조감도

현대로템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사회 부문에서 A+(매우 우수)등급

을, 환경 부문과 지배구조 부문에서는 각각 A(우수)등급을 획득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통합 A등급을 달성한 이래 2년 연속 같은 등급을 유지하며 우수한 ESG 경영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올해 지속가능경영을 강조하는 글로벌 추세를 반영해 전 부문 평가 문항 난이도를 올린 상황에서 얻은 결과라 의미가 남다르다. 실제로 올해 A등급을 부여 받은 기업은 총 116개사로 작년(171개사)보다 55개사(약 32%)가 감소했다.

현대로템은 사회·경제적 가치 창출과 인적 관리 및 경영 체계의 고도화, 친환경 제품 투자·개발 등 전사적 노력을 펼치고 있다. 글로벌 비영리 기구인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CDP)에도 참여해 신뢰성 있는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공개했다.

아울러 ESG 관련 전사경영협의체를 통해 지속가능경영 과제 이행 성과를 관리 중이다.

이사회 산하의 투명경영위원회를 통해 내부거래 투명성 제고와 공정 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이행 점검 등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도 구축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내년에도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친환경 철도차량과 수소 인프라 등 다양한 제품군을 중심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ESG 경영 선도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YouTube logo and QR code with text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SK바사 초석 마련 故 박만훈 부회장 국민훈장 수훈



국민훈장을 받았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2022년 보건 산업 성과교류회'에서 박 부회장이 대한민국 보건 의료기술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국민훈장(무려장)'을 수훈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창용 한은총재 태국 중앙은행 80주년 기념식 참석 차 출국



참석하기 위해 1일 출국한다. 귀국 일자 5일로 예정됐다.

해당 컨퍼런스는 태국중앙은행과 국제결제은행(BIS)이 공동 개최한다.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 국제기구 인사, 해외 석학 등이 참석한 가운데 1일부터 3일간 진행된다.

한은 관계자는 "이 총재는 한국은행-태국중앙은행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위해 패널 토론자로 참여했다"고 말했다.



정명기 GS건설 마케팅담당(왼쪽부터)과 박준규 정보보안팀장, 김영신 CTO, 김석환 플랫폼개발팀장, 이왕재 IT담당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GS건설 정보보호·개인정보 관리체계 인증

자이 홈페이지, GS SPACE

GS건설이대표 브랜드인자이(Xi)의 홈페이지, 자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자이 스마트홈 네트워크 시스템 애플리케이션인 GS SPAC E를 대상으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관리체계(ISMS-P)' 인증을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

ISMS-P 인증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제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동 고시 기준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인증한다.

세부 인증 기준으로는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16개 항목) ▲보호대책 요구사항(64개 항목)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22개 항목) 등 3개 영역에서 총 102개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오늘부터 전력도매가 상한제... 업계 “소송도 불사” 반발

제도 시행으로 발전사 손해 예상 민간 발전업계 “한전 적자 떠넘겨” 한전 “소비자 보호 최소한의 조치”



지난 30일 서울 시내 주택 및 상가 밀집 지역에 전기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다. 한국전력(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사들이는 전력도매가격(SMP·계통한계가격)에 상한을 두는 제도가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에 따르면 산업부는 이날 ‘전력시장 긴급정상상한가격 제도’(SMP 상한제)에 대한 장관 승인을 받고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한국전력(한전)이 발전사에서 전력을 구매하는 도매가격인 SMP의 상한선을 두는 제도가 1일부터 시행된다. 한전 적자폭 완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다만, 제도 시행으로 손해가 예상되는 민간발전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이날 ‘전력시장 긴급정상상한가격 제도’(SMP 상한제)에 대한 장관 승인을 받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SMP 상한제가 도입되면 발전사는 직전 3개월간 SMP 평균이 최근 10년 평균의 1.5배를 넘어서면 이보다 더 비싼 가격에 전력을 판매할 수 없다.

전력업계에 따르면 상한제 시행시 SMP는 1킬로와트시(kWh)당 약 160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10월 SMP가 kWh당 251.65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발전

사는 90원 정도의 손해를 보게 되는 셈이다.

반대로 한전은 발전사로부터 사들이는 전력구매 가격을 그만큼 절감할 수 있다.

한전은 당초 지난 5월 행정예고에선

SMP 평균이 최근 10년 평균의 1.25배로 상한 수준을 정했으나 제도 수용성 등을 고려해 상한수준을 1.5배로 올려 민간 발전사 부담을 완화했다.

또 SMP 상한제가 지속될 경우 발전사 손실이 커질 수 있어 SMP 상한제를

3개월을 초과해 연속 적용하지 않고 1년 후엔 일몰되도록 했다.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발전기 용량 100kWh 미만은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했다.

민간 발전업계는 그러나 SMP 상한제 도입이 한전 적자를 민간 발전사에 떠넘기려는 것이라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SMP 상한제 공동대책위원회’를 주도하고 있는 전국태양광발전협회는 태양광 발전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행정소송 제기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 중이다.

반면, 한전은 SMP 상한제 시행 목적이 한전 적자 보전이 아니라 연료가 폭등 상황에서 전기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산업부의 최소한의 조치라는 입장이다.

한전 관계자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연료비가 이례적으로 폭등하면서 민간발전사업자에게 과다한 이익이 발생했고, 향후 국민들이 전기요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과도한 이익을 적정수

준으로 규제하고, 향후 국민 부담 부분을 합리적으로 보호해주는 차원에서 SMP 상한제가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돼도 발전기 연료비를 모두 보전하므로 민간 발전사업자에게 대규모 손실은 발생하지 않으며 SMP 폭등으로 인한 황재이의 일부 제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올해 3분기 누계 주요 민간발전사업 영업이익은 작년 한해 영업이익의 두배 수준에 달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 3분기까지 SK(SK E&S·파주에너지)·GS(GSEPS·G파워)·포스코(포스코에너지)·삼천리(에스파워) 등 4개 대기업 계열의 민간발전 6개사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95% 늘어난 1조4781억원에 달했다. 그에 반해 발전사업자 정산금을 부담해야 하는 한전은 유례없는 적자를 기록 중이며, 이는 결국 전기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설명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농진청, ‘홍삼·간장 품은 이색 치즈’ 개발

홍삼 치즈 제조기술 특허출원 국내산 치즈 소비 확대 기대

국내 치즈 소비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이색 국산 치즈가 개발됐다.

농진청은 30일 국내산 치즈의 품질 차별화를 위해 이색 치즈 2종 ‘홍삼 스트링 치즈’와 ‘간장 고다 치즈’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수입산 의존도가 큰 국내 치즈 시장에서 국내산 치즈 소비 확대가 기대된다. 농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치즈 소비량은 2011년 2kg에서 2021년 3.7kg으로 증가 추세다.

이번에 개발된 홍삼 스트링 치즈는

‘찢어먹는 치즈’로 알려진 스트링 치즈에 기능성 소재인 홍삼을 첨가해 고소하고 짭조름한 치즈 맛에 홍삼 특유의 향이 은은하게 배어 있는 게 특징이다.

홍삼 분말을 5% 첨가해 100g당 진세노이드 5.6mg이 함유돼 있어, 홍삼의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효과 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이다.

특히, 일반 스트링 치즈는 냉장 보관이 길어지게 되면 유산균과 효소의 작용으로 물러져 품질이 떨어진다. 반면, 홍삼 스트링 치즈는 냉장 보관 2주 후 조직 특성을 분석한 결과, 단단한 정도(경도)가 그대로 유지됐고 같은 기간 보관한 일반 스트링 치즈보다 경도가

40% 높았다.

농진청은 홍삼 스트링 치즈 제조 기술에 대해 특허출원을 완료했다.

간장 고다 치즈는 숙성치즈 특유의 향과 강한 짠맛에 익숙하지 않은 국내 소비자의 입맛을 고려해 개발했다.

소금물에 담가 염지하는 일반 고다 치즈와 달리 간장 고다 치즈는 조선간장으로 염지한다. 보통 고다 치즈는 1kg당 8시간 동안 염지하지만, 간장 고다 치즈는 30분으로 충분히 제조 시간을 크게 줄였다.

고다 치즈는 숙성기간이 길어질수록 특유의 풍미가 더해지고 짠맛은 더 강해지는데, 간장 고다 치즈는 풍미를 유



간장 고다 치즈(왼쪽)와 홍삼 스트링 치즈. /농진청

지하면서 염도는 24% 낮아 짠맛이 덜하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전국 유가공 낙농가를 대상으로 매월 진행하는 정기교육과 현장 기술 지원을 통해 이색 치즈 2종의 제조 기술을 보급할 예정이다.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물이용과 김진형 과장은 “국내 소비자 기호에 맞고 기능성 소재를 활용한 치즈를 꾸준히 개발, 보급해 국내산 치즈 소비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한국남부발전 이해충돌방지법 웹툰 제작

한국남부발전(이하 남부발전)이 영산대학교 웹툰학과 학생들과 함께 내부 직원과 일반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풀이한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브랜드툰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브랜드툰이란 젊은 층에 인기가 많은 미디어매체인 웹툰에 스토리와 정보를 담아 광공서나 기업 브랜드를 자연스럽게 홍보하는 새로운 마케팅 방식이다.

이번 브랜드툰 제작은 지역대학교와 산학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해충돌방지법 내용에 대한 일반 대중과 임직원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여 더욱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부발전과 영산대학교 웹툰학과 학생들은 브랜드툰에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내용인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등 신고·제출 의무사항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등 제한·금지 행위에 대해 만화로 그려 내 추상적인 법조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담아냈다.

또 남부발전은 국무조정실이 정리한 공공기관 갑질사례에 대한 브랜드툰도 제작해 사내·외 갑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도록 했다.

이승우 사장은 “브랜드툰 제작을 통해 이해충돌방지법과 공공기관 갑질사례를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라며 “윤리·인권경영 실천을 위해 앞으로도 꾸준한 교육과 협력활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도식 기자 metrobusan@

가스공 “도시가스 절약하면 캐시백 드려요” 인천국제공항공, 공공기관 최초 ‘카페이’ 도입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절감시 혜택

겨울철 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이면 가스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캐시백이 지급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주택 난방용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구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일정 사용량을 절감할 경우 캐시백 혜택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한국가스공사는 한국도시가스협회와 공동으로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전국 가정용 도시가스 사용자 1600여만

가구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수요절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캐시백은 7% 이상 절감 시 30원/㎡, 10% 이상 절감 시 50원/㎡, 15% 이상 절감 시 70원/㎡으로 절감률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로, 참여를 희망하는 도시가스 사용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에너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도시가스 수요절감 프로그램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차량 내에서 주차요금 결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30일부터 인천공항 내 모든 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차량 내에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카페이(CarPay) 서비스를 공공기관 최초로 개시했다고 전했다.

공사와 현대자동차그룹 간 협업을 통해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하게 된 카페이는 고객이 출차 시 내비게이션 화면을 통해 주차요금을 결제하고, 결제가 완료되면 주차장 출구에서 별도의 절차 없이 출차가 가능한 서비스

다.

해당 서비스는 카페이 기능이 탑재된 제네시스, 현대차, 기아 전 차종에서 이용 가능하며, 11월 국내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를 받은 고객은 별도의 설치과정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공사는 카페이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기존 사전무인요금 정산기를 이용하거나 주차장 출구에서 대면 요금 결제를 위해 대기할 필요가 없어짐에 따라 주차장 혼잡 완화 등 이용객 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전망한다.

/허정윤 기자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서울 지하철 노조, 파업 출정식 열고 투쟁 알리 /사진 뉴스스
▲서울시, ‘지옥고’ 해소에 7.5조원... 임대주택 이주

▲영등포구, ‘여성 맞춤형 금융교육’ 실시... “경쟁력 높일 것”
▲‘미세먼지 막아라’... 서울시, 배출가스 5등급차 운행제한



▲서울시, ‘멧돼지 조치’ 출동 284건... 작년보다 28% 감소 /사진 뉴스스
▲‘채팅으로 범죄 신고하세요’... 경찰청, 폴봇 서비스 개시



[라이프]
“일상을 특별하게”
유통업계
캠핑감성 무장
L1



Life

매일 아침 내 손안의 친구
메트로 창간 20년

노인일자리 만들기
정보나눔의 길을 계속 가겠습니다.



주거취약 ‘지옥고’, 안심주택으로... 서울시, 주거상향 돕는다

서울시 주거안전망 종합대책

안심주택

- 2026년까지 1만6400가구 공급
- 침수 이력 있는 반 지하 우선 매입
지하층 비주거용, 지상층 임대주택 활용
- ‘안심 고시원’ 인증제 신설
-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해 공공기숙사 건립
- 옥탑방 주거성능 개선
- 단열, 창호, 방수 등 집수리 지원

안심지원

- 주거상향(공공임대 입주) 확대
- 특정바우처 등 월세 지원
- 장기안심주택 등 보증금 지원

안심동행

- 민관협력전담 플랫폼 구축
-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용
- NPO·기업 사회공헌 연계

자료/서울시

2026년까지 1만6400가구 공급 반 지하 매입, 지하층 비주거용 전환 노후 고시원 서울형 공공기숙사로

서울시는 주거취약계층의 일상과 안전을 보듬기 위해 침수이력이 있는 반 지하주택을 사들이는 등 ‘주거안전망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침수·화재 등 여러 위험에 노출된 반 지하·고시원·옥탑방 같은 취약주택을 안전하고 쾌적한 ‘안심주택’으로 바뀌어나갈 계획이다.

반 지하 주택은 매입이나 준비를 통해 점진적으로 줄여나간다. 침수 이력이 있는 반 지하를 우선적으로 사들인다.

시는 매입한 반 지하를 신축하거나 기존의 지하층은 비주거용으로 전환, 지상층은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주거취약계층이 최우선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안심주택’은 2026년까지 1만6400호 공급을 목표로 한다.

개별 신축이 어렵거나 주변과 공동개발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 지하 주택 공동개발’을 추진한다. 기존 주택의 반 지하를 없애는 대신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용적률 완화로 늘어난 물량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매입해 기존 세입자의 재입주를 돕는다.

스프링클러·피난통로 확보 같은 안전기준, 최소면적 등 주거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소유 고시원을 서울시가 ‘안심 고시원’으로 인증한다. 고시원 리모

델링 비용을 지원해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노후 고시원을 사들여 리모델링하거나 정비사업 공공기숙사로 확보한 부지를 활용해 1~2인 가구를 위한 ‘서울형 공공기숙사’ 건립을 추진한다.

옥탑방은 최저 주거기준에 맞게 개선한다. 장애인, 독거노인, 아동 동반 가구가 거주 중인 옥탑방을 대상으로 구조, 단열, 피난 등 건축·안전기준에 맞게 수리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판잣집·비닐하우스 등 ‘비정상 거주’에 살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이 화재 등에 노출되는 일을 막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이주, 이른바 ‘주거상향’을 적극 지원한다.

구릉·성취·재건마을에 여전히 남아 있는 판잣집과 비닐하우스에 사는 1500여 가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할 수 있도록 상담을 포함한 전 과정을 ‘SH 주거안전종합센터’가 돕는다. 이주가 결정되면 주거비, 이사비, 생필품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시는 주거취약계층이 목돈 마련 부담 때문에 이사를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전·월세 보증금을 무이자 지원 하는 ‘장기안심주택’의 지원 한도를 확대한다. 반 지하 거주자의 지상층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신설한 ‘반 지하 특정 바우처’는 대상자 선정을 신속하게 진행해 12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삼성전자, 하수처리수 반도체 생산에 활용

환경부·지자체와 하수 재활용 MOU 패러다임 변화...물 부족 해결에 기여

삼성전자가 사용량이 크게 늘어날 용수를 하수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는 30일 경기도 5개시와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하수처리수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삼성전자는 친환경경영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물 취수량 증가를 ‘제로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황, 두배 가량 늘어날 농업용수를 확보해야만 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협약으로 수원과 용인, 화성과 오산시 등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삼성전자 기흥과 화성, 평택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경. /삼성전자

사업장에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재처리수를 통해 공급용수 수준으로 정화하며, 삼성전자는 추가 공정으로 초순수로 만들어 반도체 생산에 사용하게 된다.

삼성전자가 공급받을 용수는 하루에 약 47만4000톤, 연간으로는 1억7300

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자연에서 추가 취수를 늘리지 않으면서 물 부족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는 이 밖에도 취수량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노후 설비 교체, 제조공정 개선, 신기술 개발 등 용수 사용량 최적화 활동과 취수량 저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DS부문 경계현 대표이사는 “깨끗한 물을 필요로 하는 반도체 산업에서 하수 재이용수를 사용한다는 것은 큰 패러다임의 변화”라며, “혁신적인 용수 재이용 기술을 개발해 정부, 지자체와 수자원 보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외국인 관광객도 스마트폰으로 ‘택시 호출’

서울시, 새싹기업에 개발 지원 내년부터 모바일 앱 정식 출시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관광새싹기업의 외국인 관광객 모바일 택시 호출 서비스 개발을 지원했다고 30일 밝혔다.

외국인 관광객 대상 여행 정보를 제공하는 새싹기업 라이크어로컬(LIKE A LOCAL)은 프리미엄 대형 택시 호출 플랫폼인 아이.엠(i.M)택시와 협력한다.

양사는 올해 상반기부터 협력 논의를 추진했다. 현재는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내년 모바일 앱 버전의 정식 서비스 출시를 위해 내달 31일까지 웹페이지에서 시범서비스를 진행한다.

시범서비스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

으로 영어·중국어(간)·중국어(번)·일본어의 총 4개 언어로 진행되며, 시범서비스 동안 아이.엠택시에서 최대 1만원 할인권(1인 1회 한정, 한정 수량)을 제공한다.

웹페이지 상담창에서 목적지를 입력한 후 GPS 기반 위치 또는 이용자가 직접 지정한 위치를 출발지로 설정하면, 실시간 교통상황을 반영한 거리와 이동시간이 계산돼 확정 요금이 안내된다. 손님이 확정 요금을 선결제하면 탑승 정보가 기사에게 한국어로 자동 번역돼 전송된다.

인공지능 기반의 실시간 여행 일정 추천 B2B 기술제공 새싹기업 글로벌러어(GLOBALEUR)는 티머니에서 운영하는 택시 브랜드 ‘티머니onda 택시’와 협력한다. /김현정 기자

고양시, 도로정비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도비지원금 6000만원 지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경기도에서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시·군 도로정비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도비지원금 6000만원을 지원받았다고 30일 밝혔다.

고양시는 평가를 통해 교통혼잡개선, 노후 도로 포장·보수, 배수시설 정비, 제설 대책 등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시는 교통혼잡지역을 자체 발굴하여 장항사거리 일원 등 올해 총 16개

소의 혼잡지역을 개선했다.

고양시는 보행자 안전과 심미성을 모두 갖춘 보도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도 힘써왔다. 고양시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인조화강블록을 벗어나 다양한 소재와 패턴 구성이 가능한 기능성·디자인 블록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시는 지난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복구 사업을 실시하고 내년도 수해 대책을 마련해 사전에 대비하고 있다. 또한 겨울철 체계적인 제설 대책 또한 준비하고 있다. /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서울시는 이번달부터 내년 3월까지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기간 서울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된다. 5등급 차량 단속 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적발될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28 | 해질 17:14

12월 1일 (木)
음력: 11월 8일

수도권 날씨: -9 ~ -7°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연천 -12/-2, 동두천 -11/0, 가평 -13/0, 파주 -13/-1, 서울 -9/-1, 양평 -10/0, 인천 -7/-1, 수원 -8/-1, 용인 -8/-1, 평택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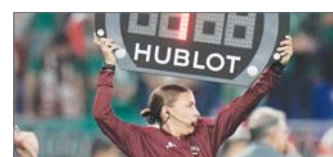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메시 vs 레반도프스키...16강 놓고 운명적 맞대결
▲조규성, 유럽 이적하나...페네르바체·렌 관심 /사진 뉴시스

▲AFC “韓 16강행 만만찮지만 불가능은 아냐”
▲韓 16강 탈락 위기에 김민재·조규성·이강인에 눈독



▲김시환·김비오, 아시안투어 1위 자리 놓고 ‘진검승부’
▲프라파르, 월드컵 본선 주심 맡아...이번에도 여성 심판 새 역사 /사진 뉴시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SK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Btv에서도, 스마트폰에서도 ZEM을 만나보세요



Why?
Btv ZEM
오직 Btv에서
생생하게 만나는
초등 필독서

트트영어
Btv ZEM
IPTV 최초 독점 제공
즐기면서 익히는
영어 학습 콘텐츠

약속모드
ZEM 앱
부모와 약속하고
스스로 관리하는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 습관 만들기

스스로 습관
ZEM 앱
건강, 공부 등 아이에게
꼭 필요한 자기주도적
일상 습관 만들기